

여서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3월
2025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북천안지점 거래고객
(주)에이티엔지 강현규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방배동지점 거래고객
유나이티드병원 김현철 병원장



IBK 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좋은 직원과 오래오래 함께하고픈 대표님께

인재를 지키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고,
직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저축.
지금, IBK기업은행에서 시작하세요.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이란?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은 재직자가 월 10만~50만원을 적립하면 중소기업이 재직자 납입금의 20%를 납입하여 만기 시 정기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오래오래 중소기업에게 든든하게



· 납입금 전액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 적용
· 법인기업(소금), 개인기업(필요경우) 인정

◀ 기업을 위한 IBK기업은행만의 7가지 혜택 확인하러 가기

오래오래 재직자에게 넉넉하게



· 기업지원금 + 우대금리는 최대 4,029만원 목돈 형성 (원금 3,000만원 기준)
· 만기 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최대 90% 감면

◀ 재직자를 위한 IBK기업은행만의 7가지 혜택 확인하러 가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7641호(2024.12.17) 유송기간(2025.12.16) 기업대상: 중소기업(업종공통)에서 상품가입을 승인한 설명의 개인 (외국인 가입가능)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름) · 가입제한: 영업일 창구, HOME Bank(개인) · 계약기간: 3년제, 5년제(3년제는 추후 판매 예정) · 적립금예: 최소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이내로 월 1회 납입 가능, 최초 가입한 금액(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라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에서 승인한 금액)으로 적립 가능 · 만기시예상수익이자액: 최고금리연5.0% 적용 시예상수익이자액 2,287,500원(세전) 월 납입액 30만원, 계약기간 180개월(가정시)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세부사항 변동 가능) · 적용이자율(24.12.17 기준, 세전): 최고이자율은 연5.0%(7년이자율+우대이자율), 기본이자율: 연3.0%(3년, 5년) · 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일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 · 가입일 이후 3년 경과 시 1년 단위로 기본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우대이자율: 최고 연 2.0%(급여세 연1.0%, 자료공과금 자동이체 연 0.5%, 카드이용 연 0.5%) · 이자 및 수익의 지급시기: 만기일시 지급-연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계약에 일부, 기업유, 실권상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이예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만일 '5천 원'까지만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된다. · 자세한 문안은 가계 영안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소지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호 제2장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 04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여성시대 가족들 감사합니다
- 12 이달의 편지
'깊어지는 인생을 위한 필사' 외
-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주)에이티이엔지 강현규 대표
-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유나이티드병원 김현철 병원장
- 80 코너 속 편지
'내 마음속 영원한 반장' 외
- 111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깊은 생각
- 113 김일종의 스튜디오에서
졸업식과 입학식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5년 3월 10일 발행인(취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종 프로듀서 안동진, 김예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릉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여성시대 가족들 감사합니다

손숙 여성시대 전 진행자

글 | 박금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추억은 힘이 셉니다. 때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하거든요. 길 가다가 멀리서 어떤 냄새가 나면, 우리는 그 향에 얽힌 추억 속으로 침병 들어가곤 합니다. 노래를 들어도 그래요. 그 노래와 연결되는 그 시절 그 사람이 그때 그 감정이 순식간에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극이나 영화에서 텔레비전에서 손숙 씨를 보면 여성시대 가족들은 손숙 씨와 나눈 추억이 따라서 떠올른다고 하십니다.

올해는 여성시대가 방송 50주년을 맞는 해. 2월 4일 열린 화요일에 여성시대를 10년간 진행한 배우 손숙 씨를 초대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라 당당이님들이 지켜보며 문자로 소통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 보고 싶고 그립고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여성시대 50주년이라니 감개무량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라디오’는 생소하네요. 목소리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택시 탔을 때 ‘어디로 가주세요~’ 하고 말씀드리면, 기사님이 열린 뒤를 돌아보며 반가워하세요. 목소리가 귀에 익다고요.”



그렇 만도 합니다. 손숙 씨는 1990년 4월부터 1999년 5월 24일까지 여성시대 가족들의 벗이었거든요. 봉두완, 변용전, 정한용, 김승현 진행자와 함께 여성시대를 이끈 손숙 씨.

손숙 씨는 연극배우, 수필가, ‘환경운동연합’과 ‘아름다운 가게’ 공동대표로도 활약하고 있어서 환경부 장관으로 발탁되는 배경도 되었지요.

여성시대 가족과 헤어지던 그해 5월 24일 아침 얘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그날 아침에 갑자기 임명받고, 인사도 제대로 못 하고 떠나서 여성시대 가족들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러시아 국민 방문 때 저는 예정된 연극 ‘어머니’를 공연했는데 러시아가 문화강국이잖아요. 전 관객이 기립박수를 하자 기업인들이 덩달아 감동해서 배우들 밥값이라며 무대로 올라와 금일봉을 건넸습니다. 커튼콜 때 제가 대표로 봉투를 받았고, 관객을 향해 흔들고는 극단에 주었죠. 그런데 돌아왔더니 그 일이 뇌물수수가 되어 있지 뭐예요. 저는 그 돈을 만져본 적도 없죠. 그 많은 관객이 보는 데서 뇌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배우들 밥 먹으라고 준 봉투인걸요. 한 달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일찍 그만둔 게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을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성시대 가족들과 쌓은 추억이 정말 많다는 손숙 씨. 해외교포들을 찾아간 위로 방송, 1박 2일 동안 여성시대 가족들과 지낸 주부 나들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과 함께한 미고사결혼식, 농촌 일손 돕기, 입양가 가족 찾기, IMF 구제금융 시기도 잊을 수 없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무슨 전조가 있는 것처럼 IMF 구제금융이 발표되기 훨씬 전부터 안타까운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한 번은 빗 때문에 오지로 떠난 분이 편지를 보내서 울면서 편지를 읽었는데 세상에 채권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 주소 달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무렵에 또 어느 분은 유서 같은 편지를 보내서 읽고 전화를 연결했던가 하여튼 죽으면 안 된다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십수 년 지나 대구에서 공연할 때 그분이 오셨어요. 처가와 친가에서까지 돈을 빌린 사업이 기울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손숙 씨 얘기 듣고 다시 살아볼 용기를 냈다고 이제는 다 회복했다고, 초등학교이던 딸이 이제 대학생이 됐다고 데리고



오셨는데, 저는 그날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을 한 보람이 이렇게 클 수 있구나, 하느님께 얼마나 감사드렸나 몰라요. 다시 살아보는 계기가 됐다면 제가 감사하지요.”

외환위기 당시 고통받던 민초들 사연은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에서 라디오 부문 대상을 받았고 단행본으로도 펴냈습니다. 1998년 9월 3일에 방송된 ‘여성시대 특집-벼랑 끝에서 하늘을 보다’ 방송을 27년이 지난 오늘, 다시 들었습니다.

‘...연일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 뉴스가 이어지는데... 남편의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 보았는데 30분이 넘어도 오지 않아 가슴이 철렁해서 내려갔더니 남편이 운전대에 고개를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삼남매를 두고 멀리 남미로 취업해 떠난 엄마가 가



죽이 그립고 전화요금이 두렵다는 사연에 전화 상봉을 주선하며 우리 서로 씩씩하게 견디자고, 잘 견뎌서 가족을 꼭 만나자고 호소하는 손숙 씨 음성에는 시간을 거슬러 27년 전의 청취자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성시대를 진행하던 때가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청취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편지 읽으면서 제가 먼저 아픔을 치유 받았어요. 그래서 여성시대를 잊을 수 없어요. 그 당시의 여성시대가 조금의 위로가 되었다면 저는 더 없이 감사하지요."

손숙 씨와 아침을 같이 보낸 여성시대 가족들도 마음을 전해오셨습니다.

2420님: 이승의 끈을 놓고 싶을 만큼 혼란스러웠던 그해 가을! 가을 나들이에 참가해 캠프파이어 시간에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던 제게 다가와 어깨 토닥여 주던 손숙님 손길이 그 어떤 위로보다도 제게 큰 힘

이 되었습니다.

6357님: 화물차 기사입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 32년 전을 회상하는데 왜 이리죠? 손숙 선생님 목소리에 눈물이 계속 나요. 저는 그때 31살, 모든 게 그립습니다. 건강하세요.

마주 보며 같이 울고 같이 웃었던 친구를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내 눈물을 닦아준 손길을 어찌 지울 수 있을까요. 손숙 씨는 여성시대 가족들에게 눈물 많은 다정한 친구, 잊을 수 없는 멀리 있어도 늘 곁에 있는 것 같은 오랜 벗입니다.

“지금도 공연장에 월간 여성시대를 가져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50년을 지켜주신 여성시대 가족들과 양희은 씨, 김일중 씨 감사합니다. 100년까지 가야죠.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부를 전합니다>

[1031] 아빠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네요. 세월이 지났어도 너무나 그리운 아빠. 올해 손녀가 원하는 중학교에 배정을 꼭 받을 수 있게 아빠가 곁에서 많이 살펴봐주세요. 늘 그리운 우리 아빠~



[7576] 언니야~ 내가 언니가 하소연할 때 형부 편만 들었다고 섭섭해하더니, 연락을 안 하고 있네! 동생이 정말 미안해. 그냥 형부도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앞으로 언니 편 더 많이 들게. 친하게 지내자, 응!

[0735] 지난 명절에 남편과 올케가 사소한 오해로 데면데면한 상태예요.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될 텐데 둘 다 그게 안 되나 봅니다. 친정엄마가 속상해하셔서 둘 다 그 마음 좀 헤아려 주면 좋겠습니다.

[5400] 3월에 결혼하는 예신입니다. 올해 마흔이 됐는데 철부지 딸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부모님께 전하고 싶어요. 막상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울컥하기도 하고 잘살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쁘게 잘살고 싶어요! 엄마아빠 사랑해요♡

[8280] 저는 이맘때쯤이면 저의 실장님에게 안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가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망설일 때 옆에서 사람이 재산이라며 용기 주시고, 사는 거 옆에서 늘 지켜봐 주신 우리 실장님. 지금은 퇴직 후 이곳저곳 전국을 돌며 그동안의 힘듦을 내려놓는 중이신데 올해도 건강하시고 조심히 여행 마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오시면 제일 좋아하시는 동태탕 있는 집밥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 12 깊어지는 인생을 위한 필사
- 15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기적
- 19 잘 산 것 같습니다
- 24 다녀왔습니다
- 27 아버지의 흔들의자
- 32 사돈은 어려워
- 35 딸이 건네준 차 한 잔
- 38 타 쓰는 돈 꺼내 쓰는 돈
- 42 나에게 쓰는 편지
- 45 오늘도 행복한 까닭은
- 48 인생이라는 레인 위에 선 우리
- 52 우리 집 못난이
- 57 남자의 시장바구니
- 61 호빵과 아들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깊어지는 인생을 위한 필사

애청자

“주 말에 뭐 해? 애들이랑 무슨 좋은 계획이라도 있어?”
친구의 얼굴이 좋아 보여 주말에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친구는 마냥 좋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계획 있지. 애들이랑 말고 나 혼자!”

“혼자 무슨 계획? 어디 가?”

궁금해서 이리저리 물었는데 친구는 별다른 대답 없이 사진 한 장을 톡 하고 보여줍니다. 사진 속에는 뻑뻑하게 적힌 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 뭐야?”

“예전에 내가 같이 하자고 했었잖아. 책 필사.”

그제야 그 뻑뻑한 글이 책 필사를 마친 친구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친구는 몇 년 전에 저에게 필사를 제안했었어요.

“같이 해보지 않을래? 5명 정도 모였는데 너도 하면 좋을 것 같아.”

당시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슨 따라 쓰기까지 하느냐며 손사래를 쳤지요. 그리고는 깜깜하게 잊고 지냈는데 친구는 꾸준하고 성실하게 꼭 자기 성격대로 필사하며 지냈나 보더라고요. 간간히 얘기만 들었지 눈으로 직접 보니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 싶으면서 친구가 참 대단해 보였어요.

“전에 나한테 얘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거야?”

“응 무려 2년 반이나 넘게 걸렸다고~”

“아니 무슨 책 따라 쓰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 난 진짜 못 하겠다.”

친구의 얘기인즉슨 무려 250페이지가 넘는 책을 세 권이나 필사하느라 2년 반이나 걸렸는지 뭐예요. 그 끈기가 너무 대단했고 무엇보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무엇인지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뭐가 달라진 게 있어?”

“뭘랄까 정말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 요리를 하나하나 씹으며 그 맛을 온전히 느끼는 기분이랄까. 무엇보다 없던 끈기가 생겼고 생활이 너무 좋아졌어.”

친구는 필사하면서 운동도 시작했는데 지구력과 근력이 생겨서 운동도 더 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좋은 책을 필사하며 그 구절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만큼 정서도 훨씬 안정된 것 같다고 필사의 효능에 대해 구구절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친구가 정말 예전에 비해 표정도 훨씬 밝아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쳐 보이더라고요. 무언가를 해낸 사람에게서 풍겨오는 기분 좋은 향기와 단단한 마음이 마치 눈으로 보이고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부러웠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친구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하

면서 불쑥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필사가 그렇게나 좋다는데 그냥 가볍게 해보는 거지. 하다가 힘들면 그만해도 되는 거 아냐.’ 여러 생각이 드는 순간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오~ 필사가 그렇게 좋대? 나도 해볼까? 자기도 같이하자.”

그래서 저희 부부는 요즘 틈틈이 필사를 하고 있어요. 친구처럼 몇 백 페이지짜리 책은 너무 무리일 것 같아서 손바닥만한 소담한 책으로 필사하는데요. 공동 취미를 가지니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거 있어요. 필사의 효능에 부부 사이 개선 효과도 있나 봐요.

서로 쓴 글에 대한 이야기들, 필사하며 느껴지는 마음들, 몇 장 쓰면 쓰는 대로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맨날 애들 얘기, 우리 집안 재정 이야기, 양가 가족 얘기들이 정도로만 남편과 대화를 나눴었는데 필사를 한 이후로는 깊어지는 삶과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의 일을 이야기해도 그 일을 통해 느낀 마음도 같이 나누게 되니 친구가 왜 이렇게 필사가 좋다 했는지도 알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집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필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 집 책장에 곱게 놓여 있는 양희은 선생님의 《그릴 수 있어》《그러라 그래》책도 한번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네요. 그런 영광의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우선 지금 하고 있는 필사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당당이님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 듣고 마음이 꿈틀하시는 분들은 작은 책 한 권 정해서 필사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삶이 선물처럼 온답니다.

Letter 02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기적

최양수 | 서울 강서구 화곡로

난 임. 결혼할 당시만 해도 나와는 거리가 먼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임신은 단순히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었다.

“너희 두 사람이 너무 금실이 좋아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주변 지인들은 결혼 후 4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우리 부부를 나름의 방식으로 위로했다. 양가 부모님은 대놓고 내색하진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눈치였다. 무엇보다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하늘이 야속했다.

결혼 5년 차가 되니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졌다. 아내나 나나 늦은 나이였기에 더는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다. 상의 끝에 유명한 난임 병원을 찾아가 이런저런 검사들을 받았고 결과는 사뭇 충격적이었다. 내 경우에는 결과가 그럭저럭 평균치에 가까웠지만, 아내는 나팔관

양쪽이 다 막혀 있었고 난소도 임신이 어려울 만큼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두 분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시험관 아기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우리는 고민 끝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아이를 갖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본격적으로 시술이 시작되자 아내는 정신적으로 꽤 힘들어했다.

조금이라도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오로지 우리 두 사람을 꼭 닮은 건강한 아이를 갖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그렇게 참고 견디기만 하면 임신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냉혹했다. 첫 시험관 시술은 실패였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며 스스로를 납득시켰지만 연이어 시도한 두 번째 시술에서도 실패하자 그간 힘겹게 버텨온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지만 아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반년 정도 몸을 추스른 후 세 번째로 시도했다. 한동안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다 마침내 임신 테스트기에서 꿈에 그리던 두 줄을 확인했고 기쁜 마음으로 산부인과로 달려가 임신이라는 소견을 전해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믿기 힘든 기적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배 속 아이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듣던 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임신 후 우린 하루하루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지내야 했다. 시험관으로 어렵게 가진 아이여서 그런지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투성이였다.

먼저 임신 10주 차에 원인 모를 출혈이 일어났다. 의사는 2-3일 이

내에 유산이 진행될 수 있다며 2주간 입원을 권유했다. 아내가 약을 먹고 유산 방지 주사를 맞으며 입원 치료를 받는 내내 나는 근심과 기도 속에서 지냈다. 다행히 출혈이 멈추고 유산기도 수그러들어 정상적으로 퇴원했지만 고난은 우리를 쉬이 놓아주지 않았다.

임신 6개월이 됐을 무렵 내내는 아랫배에서 낫선 이물감이 느껴진다며 병원에 가보자고 했다. 마치 아이가 아랫배 깊숙한 곳을 다리로 툭툭 건드리는 것 같다고. 초음파를 보는 의사 선생님의 깊은 한숨 소리. 좋지 않은 느낌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아이의 다리가 자궁 입구까지 와있다고 했다.

‘자궁경부무력증’ 당장 대학병원으로 가서 자궁목을 병합하는 맥도날드 수술을 받아야만 한다고 알려주었다. 슬퍼할 틈도 없이 우린 대학병원으로 갔다. 그날 오후 바로 응급수술이 이루어졌고 출산할 때가 아닌데도 내내는 수술대에 올라야만 했다. 그저 황당하고 비통한 마음뿐이었다.

수술은 부분마취로 진행되었고 나는 수술이 진행되는 40여 분 동안 혹시나 아내나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마음을 줄여야만 했다. 아무 탈 없이 수술이 잘 끝났다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지만 아이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내내는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야만 했다.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꼬박 하루에 23시간을 누워서 지냈다. 매번 밥을 먹자마자 바로 눕다 보니 내내는 늘 소화불량에 시달렸지만 아이를 위한 일이기에 전혀 힘들지 않다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런 아내를 보다 못한 나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아내 곁에서 잔시중을 들며 집안일을 처리했다.

마트에서 장을 봐 식사를 준비했고 빨래, 청소와 씨름하며 하루를

보냈다. 툼툼이 아내 곁에 누워 아이의 태동 소리를 들으며 아이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다.

아내의 배 위에 손을 올린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있노라면 배 속에서 매일 조금씩 자라는 아이의 숨결이 손바닥을 통해 내 가슴으로 전해졌다. 손바닥 아래로 태동하는 아이를 느낄 때면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들곤 했다.

하지만 꼬박 석 달을 누워 지내는 동안 아내에게는 여러 부작용이 속출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임신성 당뇨,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우울증까지 찾아와 매일 눈물이 마를 틈이 없다.

나는 지칠 대로 지친 아내에게 “우리 여기까지 잘 이겨냈잖아. 내가 당신한테 힘을 실어줄게. 우리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자.” 그리고 배 속 아이에게도 “아가야, 너를 품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아빠랑 엄마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우리는 끝까지 잘 견뎌서 무사히 너를 낳을 거야. 우리 꼭 건강하게 만나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한 우리 부부는 얼마 전 건강한 아이와 만날 수 있었다. 우리의 모정과 부정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해준 힘의 원천이 돼주었다.

아이도 아내도 나도 지금까지 힘을 발휘해 잘 버텨준 게 너무 대견하고 고맙다. 천사 같은 아이의 온기와 생기, 손짓과 눈웃음 등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저 꿈만 같은 요즘이다.

Letter 03

잘 산 것 같습니다

애청자

저는 어릴 때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척추를 다쳐 장애 4급 판정을 받고, 뇌병변 2급 장애를 가진 남편과 살고 있는 50대 중반 시골 당당이입니다. 남편이 뇌병변 장애로 왼쪽 몸이 마비되면서 사회생활이 어려워져 저희 부부는 시골로 내려와 특작물 농사를 짓고 있어요.

오늘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결혼을 앞둔 저희 딸 그리고 작년 3월에 결혼한 아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딸아이의 결혼을 앞둔 애들을 낳아서 키운 날들이 생각이 나네요.

아들은 대학 졸업까지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학기 중에도 알바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더니 졸업과 동시에 공기업과 사기업 몇 군데에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공기업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딸은 국립대에 진학해 장학금 받은 돈으로 캐나다 어학연수까지 다녀

왔지요. 딸은 지금 남들이 조금 알아주는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저는 신혼부터 시부모님과 장장 30년을 같이 살며 쉽지 않은 농사일에 뛰어들어야 했는데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농사에 큰집 살림 살기란 쉽지 않았지요.

남편의 왼쪽 몸이 되어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없었고 시부모님은 자상하신 분들이 아니셔서 저는 늘 주눅 들어 있었어요. 세간살이 사는 거, 장 보는 거, 마실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폭언에 시아버님 주방 간섭, 그것도 제대로 못 하냐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시어머님. 거기다 말 그대로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시골 방 2개짜리 흙집. 편히 숨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본 할머니는 저희 아버님과 큰고모님만 낳고 일찍 돌아가셔서 새 할머니님이 계셨어요. 같이 살진 않았는데 시할머니는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오시면 석 달 열흘은 있다가 가셨고 또 가시고 나면 큰 시고모님이 오셔서 한 달 보름 있다 가시고, 큰 시고모님이 가시고 나면 또 시이모님이 오셔서 한 달 보름을 지내셨습니다.

거기다 아버님 댁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오셔서 농사지은 거 다 챙겨 가셨고, 주말만 되면 큰 시누네 형님, 시동생네까지 찾아오니 제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제 몸도 불편함이 많으니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늘 수익은 다른 집 반도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죽을 둥 살 둥 온 힘을 다해 꾸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에게 소홀해질까 교육에도 더욱 신경 썼어요. 장애가 있어서 애들을 잘못 키웠다는 소리만큼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모를 보고 시골에서 자란 아들과 딸은 늘 기쁨과 행복만

을 가져다줬습니다.

지금 아들이 31살, 딸이 29살인데 정말 부모 도움 전혀 받지 않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결혼 준비를 해냈어요. 우리 아이들 참 잘 컸죠? 어려운 환경에서 컸으니 성격이 모나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는데 제 걱정과 달리 둘 다 너무 잘 커 주어서 자식 잘 키웠다며 마을의 부러움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5학년일 때 일입니다. 당시 딸아이가 학교 추천으로 무슨 대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게 다른 지역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행사였어요. 부모를 동반해서 가야 하는 거였는데 척추 장애가 있는 저는 키 128cm에 한눈에 봐도 등이 굽었으니 아이가 남들의 시선에 상처받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별수 없지요. 아이와 함께 신호를 기다리는데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이 역시나 저를 보면서 “엄마가 왜 저래? 이상해” 하면서 깔깔 웃는 겁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딸아子和 슬그머니 멀어졌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제 옆에 오더니 “엄마~ 재들이 왜 저러는지 알아요? 엄마가 너무 예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럽나 봐~” 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신호등을 당당히 건네주더라고요. 그날 저는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역시 전 기쁨 반 걱정 반이었지요.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아들이 뿌듯함과 동시에 입학식에 동참할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시간은 흘러 입학식 전날이 되었고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아들이 안 자고 저를 말뚱말뚱 바라보는 겁니다.

“아들~ 왜 안 자?”

“엄마~ 석이는 엄마가 무슨 고민 있는지 다 알아.”

“응? 엄마 고민? 뭔데?”

“엄마, 내일 내 입학식 갈까 말까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 엄마가 학교 같이 가면 좋겠어, 안 갔으면 좋겠어? 석이가 오지 말라면 엄마 안 갈게.”

그랬더니 아들이 제 가슴에 손을 대더니 “엄마가 요기가 아프면 안 와도 돼요. 그런데 나는 엄마가 와도 아프지 않아요!” 하더라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이었어요.

다음날 저는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말했습니다.

“아들~ 혼자 먼저 씩씩하게 학교 갈 수 있지? 먼저 가 있으면 엄마가 곧 따라갈게.”

그랬더니 말없이 고개만 끄덕하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 아들 학교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라도 우리 아들 입학식을 지켜보고 싶었지요. 학교 정문에 도착하니 운동장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운동장이 어찌나 넓은지 성큼성큼 걸어 아들 곁에 걸어가기엔 너무나 멀어 보였어요. 그래서 입구 사이 벽에 서서 지켜보는데 입학하는 꼬맹이들과 엄마들이 두 줄로 쪽 서 있는 와중에 제 아들 옆자리만 텅 비어 있더라고요. 눈물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혹시 제가 몰래 지켜보는 게 들릴까 저는 아들이 정문 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마다 몸을 숨겼는데 그만 아들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이가 운동장이 찌렁찌렁 울릴 만큼 “엄마!” 하면서 저를 향해 뛰어오는데 순간 심장이 떨어질 듯 요동치면서 눈이 시큰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목을 잡아끌고는 줄 서 있던 제자리로 데려와서 “엄마! 석이 옆에 이렇게 서 있으면 돼~” 그러면서 절 보고 방긋 웃어 주었어요. 입학하는 꼬맹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며 다들 수군수군 하는데도 아들은 교실에 도착할 때까지 제 손목을 놓

지 않았어요.

그렇게 착하디착한 우리 아들과 딸은 지금까지 부모 실망 한 번 안 시키며 잘 커 주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벌써 자라서 가정을 만든다니 마음이 참 싱숭생숭합니다.

딸아이 상견례 때 안사돈 되시는 분이 가슴을 찌르는 말을 조금 하셨었어요. 그냥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쪽에는 웅덩이가 생겨 침울했고 상견례하고 돌아오는 차 안 우리 가족 모두 아무 말 없었지요. 그런데 딸아이가 제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면서 ‘엄마 아빠 제 결혼식에 뭐 하고 싶은 거 없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객분들 앞에서 두드러지게 키 차이가 나는 제 모습을 보이는 게 싫어서 혼주 엄마 같이 입장하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딸은 “이제 엄마 아빠 나 결혼시키는 거 마지막이니 난 당연히 아빠 손잡고 입장할 거고 엄마가 축하해 주면 좋겠어요. 엄마, 움츠러들지 말아요. 난 누구에게든 엄마 아빠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당당해야 내가 더 당당해질 수 있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즘 결혼식 축하 연습 중입니다. 딸아이 잔치를 앞두고 나니 애들 키우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며 이 사연 쓰네요.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는 걸 보니 제가 요즘 부쩍 울보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사연이 방송된다면 우리 아들 부부, 딸 부부에게 이 못난 엄마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로 살게 해줘서 고맙고 삶에 고달픔에도 버틸 힘을 줘서 고맙고 내 자식들로 와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너희들의 새출발을 볼 수 있어 행복하다고 엄마가 준 사랑보다 너희들이 내게 준 사랑이 더 컸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Letter 04

다녀왔습니다

애청자

올 해 제 가장 큰 과제는 딸아이 결혼이었습니다. 이제껏 품고 살던 딸을 어찌 보내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가장 시급한 건 집안 정리였어요. 직장 생활을 한다는 명분하에 우리 집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 처참할 정도였지요.

아파트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고 찌들고 오래 묵은 먼지는 구석구석에 박혀 집안이 어두컴컴했습니다. 거실과 안방에 겹겹이 걸쳐두었던 옷가지들부터 치우니 접힌 자국 그대로 영구 주름이 간 옷부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 남편 바지, 딸아이 목도리 등 먼지에 찢 쓰레기들이 수북이 발굴되었죠. 세 박스를 처리하고 나니 드디어 소파며 김치냉장고가 본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먼지 산도 깨끗이 닦여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건 거실에 흉물처럼 버티고 있는 소파였습니다.

딸아이의 키를 조금이라도 더 키우고자 구매한 소파는 일 년도 안 돼 가운데가 움푹 꺼졌고 정작 딸아이는 초경을 시작하면서 159센티의 키에서 성장을 멈추고 말았지요.

남편을 어르고 달래 애물 덩어리 소파를 분해하고 쌓인 먼지도 닦아냈지만 집안에 새 소파가 들어온 건 딸아이가 결혼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래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깨끗해진 집안과 새 소파를 보고 좋아할 테지 정리된 집안 여기저기 둘러보고 소파에 앉아보며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을 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아이는 정리된 집안과 새 소파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시집간 딸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전 몰랐습니다. 예전처럼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꽃을 피울 거라고 맘대로 믿었던 거였어요.

그제야 전 떠올릴 수 있었죠.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던 결혼을 일년이 지나도록 고집부리다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폴짝 떠났던 스물아홉의 저를요. 그런 딸이 서운했을 것인데도 어무이는 한 번도 서운하다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네가 맨날 힘들구나. 어이구 우리 새끼~”

그 마음 모르고 엄마를 만나면 몸이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엄살에 어리광만 부리며 살았던 철부지 나.

제 나이 손이 넘어서도 팔순의 어무이는 가끔 문자를 보내셨어요.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엉망인 글자로 점심 먹으러 오라고.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어 친정 대문을 열면 마당까지 흘러나오던 된장국 냄새.

“아가 어서 오이라!”

부르던 울 엄마 목소리가 지금도 귀와 가슴에 선합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집간다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삼십여 년



의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그 긴 삼십 년 세월이 벼락같이 흘러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이 예순을 눈앞에 두고서야 삼십 년 전의 울 어무이처럼 저도 엄마답게 딸과의 이별을 받아들여야 할 때란 걸 알겠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치워두면 아이가 돌아올 거란 유아기적 사고에서 벗어나 내 자식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딸아이가 마흔이 넘고 손이 넘은 어느 날 저도 아이에게 “점심 먹으러 오너라. 좋아하는 해물탕 끓여 냐다”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늙은 어미가 될 것입니다.

어무이! 저 이제야 다녀온 것 같습니다. 가족사진과 재봉틀 덩그러니 놓인 방에 반겨주실 한 분이 계시지 않은 지금. 그래도 저, 이제야 다녀왔습니다.

Letter 05

아버지의 흔들의자

애청자

어린 시절 우리 집 담장 앞에는 늘 아버지의 흔들의자가 놓여 있었다. 황토색 담장 옆에는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감나무잎이 자라 커지면 흔들의자 위로 어느덧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졌다. 아버지는 그늘 속에 앉아 담장 너머로 수채화처럼 펼쳐진 능선에 고개를 기댄 채 달디단 낮잠을 주무시곤 했다. 잠이 든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그렇듯 평온해 보였다.

서울 생활을 하던 우리 가족이 아버지의 고향으로 내려가 살게 된 건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나서부터다. 다행히 큰 고비는 잘 넘겼지만 그때부터 한쪽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다. 한동안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고 자란 고향마을이야말로 건강을 회복하기에 적격이라며 우리를 끌고 내려오셨다. 아버지의 고향은 뒤로는 높은 산이 마을을 병풍처럼 감싸안고 앞으로는 너른 들이

펼쳐진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을 갖춘 곳이었다.

어머니는 한쪽 다리가 불편해 일을 나가지 못하는 아버지를 위해 나무로 된 흔들의자를 장만해 주셨다. 아버지는 그 흔들의자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다. 종일 의자에 앉아 오전에는 담장 밖 세상 풍경을 바라보았고 오후에는 밭일을 나간 어머니를 기다렸다. 저녁에는 마을 전체로 은은하게 퍼지는 붉은 석양을 눈으로 어루만지곤 했다.

하루는 멍하니 뒷마루에 앉아 있는 내게 아버지가 오라며 손짓을 하신다.

“친구도 없고 심심하지? 아빠가 재미있는 거 만들어 줄까?”

아버지의 다정한 음성엔 아홉 살 꼬마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는 흔들의자에 앉아 한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철사와 나무를 이용해 자동차 모형의 장난감을 똑딱 만들어주셨다. 아버지의 손 솜씨엔 환호성이 절로 터져 나왔다. 그때부터였다. 팽이와 연, 목각인형에서부터 각종 우주선 모형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손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장난감이 만들어졌다. 무료하기만 했던 그해 여름 아홉 살 꼬마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장난감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다. 흔들의자는 아버지의 작업 공간이 되었고 나는 안채와 흔들의자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게 됐다.

어느 날이었다. 조용하기만 하던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밖으로 나가보니 동네 아이들 서넛이 집 앞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내가 대문 밖에 걸어 놓은 몇몇 장난감들 때문인 것 같았다. 나와 눈이 마주친 한 아이가 말을 걸어왔다.

“이거 네가 만든 거야?”

“아니, 우리 아빠가 만들어준 거야. 한번 와서 볼래?”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 아버지가 장난감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었

다. 감탄사를 내뱉는 아이들의 두 눈에 부러움과 동경이 가득했다. 순간 내가 직접 장난감들을 만들더라도 한 듯 양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집에 자주 놀러 오게 됐다. 아버지는 아들이 새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다. 어머니에게 얘기해 미리 먹을 것을 준비시키고, 흔들의자에 앉아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도 이것저것 만들어주었다. 동네 아이들은 무언가 놀이 도구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를 찾았다. 우리는 장난감이 만들어지는 동안 흔들의자 주변을 맴돌았다. 나는 아버지를 통해 좋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다. 나와 아이들은 아버지가 만들어 준 고기잡이 어망과 연, 잠자리채, 팽이 등을 들고서 온 동네를 신나게 헤집고 다녔다.

한번은 아이들이 모르는 친구들까지 여러 명을 데리고 우리 집에 우르르 몰려왔다.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동네에서 쥐불놀이를 한다고 솜씨가 좋은 아버지에게 쥐불놀이용 강통을 만들어달라고 온 것이었다. 아이들은 흔들의자 주위로 빙 둘러앉아 아버지 앞에 주워온 강통들을 내밀고는 말뚱말뚱한 눈빛으로 작품을 기다렸다. 우리들이 만들었으면 한 시간이 족히 넘었을 쥐불놀이용 강통 하나를 아버지는 단 10여 분 만에 똑딱 만들어냈다.

“거봐. 우리 아빠 엄청나게 잘 만들지? 하하하~”

“우와~ 엄청 빨리 만들어. 그것도 삐뚤삐뚤하지 않게 진짜 잘 만들었는데. 아저씨, 정말 따봉이에요.”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오자 괜히 내 어깨가 으쓱해진다.

“너희들 맥가이버 알지? 우리 아빠는 뭐든 똑딱 만들어 내는 맥가이버야!”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놓으신 땅콩과 호두, 오곡밥 등을 내어 동네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은 후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쥐불놀이를 하러 아이들을 따라나섰다. 논두렁으로 나가보니 이미 동네 사람들 수십 명이 한 곳에 모여 벼단에 불을 붙여가며 쥐불놀이를 하고 있었다. 정월대보름에 맞춰 애어른 할 것 없이 밖으로 나와 쥐불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쏟아지는 달빛은 어른들의 얼굴을 밝히고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울은 밤하늘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마치 캄캄한 세상에서 희망의 불빛이 솟구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부터였다. 동네 아이들이 입을 모아 아버지를 ‘맥가이버 아재’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의 뛰어난 손재주는 아이들의 입을 타고 온 동네로 퍼져나갔다. 아이 중 한 명이 자기 부모님을 데리고 와 TV 수리를 맡긴 것을 시작으로 자전거, 비디오, 전축, 책상 등 온갖 고장 난 물건들이 우리 집에 맡겨졌다.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 흔들의자에 앉아 큰 무리 없이 그것들을 고쳐냈다. 더러는 나를 앞세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농기구나 보일러가 고장 났다는 집에 출장 수리를 가시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은 세간이 고장 날 때마다 힘들게 읍내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수리 비용도 아낄 수 있어서 좋아했다. 아버지 역시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했고 무엇보다 물건을 고치고 받은 소정의 수리비로 생활비를 보탬 수 있어서 기뻐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갈 무렵 아버지는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거짓말처럼 우리 가족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

창고 한 편에 주인을 잃은 흔들의자가 우두커니 놓여있다. 오랜 세월 탓인지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다. 머뭇머뭇 다가가 의자 깊숙이 앉아 그 옛날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본다. 고장 난 물건을 고치거나 장난감을 만들면서 행복해하던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이 생각난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꼬리를 무는 날이면 이따금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 지금은 사라진 고향 집터를 둘러보고 온다. 고향 마을의 분위기도 이제 완전히 바뀌어 날이 갈수록 낯설고 멀게만 느껴진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쥐불놀이하던 논두렁에는 새로운 길이 나고 곳곳에 공장이 들어선 지도 오래다. 함께 뛰놀던 친구들도 모두 그곳을 떠나고 없어 마음이 허허롭고 적막하기만 하다.

다만 어릴 적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만이 아슴아슴 되살아날 뿐이다. 오늘따라 흔들의자에 앉아 푸르디푸른 능선에 고개를 기댄 채 편안히 단잠에 빠져있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Letter 06

사돈은 어려워

박정신 | 경기도 고양시

우리 엄마가 요양원 입소하신 지 석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신체는 건강하시지만 인지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혼자 생활이 힘들고 위태로워 선택했던 요양원인데 생각보다 너무 잘 지내고 즐거워 하셔서 면회 가는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쯤이었어요. 시어머님께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갔었죠. 두 분이 비슷한 연배라 요양원 입소 소식을 듣고 매일 기도해 주고 걱정해 주셨던 분이셨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희 엄마, 완전 얘기가 다 되어 있어요. 보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요양원에 도착해 보호사님이 모시고 나온 엄마는 어머님을 보시고는 활짝 웃으셨어요. 건강하실 때는 왕래도 가끔 하고 통화도 가끔

하셨던 사이여서 그런지 두 분은 만나자마자 서로를 안아주면서 반가워했죠.

그런데 엄마는 이내 어머님께 반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반가워~ 잘 있었지?”

“사돈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알지 알지. 어머~ 이게 누구야~ 반가워~ 잘 지냈어?”

가벼운 인사가 오가고 두 분은 손을 잡고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에서도 엄마는 해맑게 웃으며 본인을 찾아와줘서 고맙다, 잘 있었냐, 이게 누구냐, 얼마만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셨고 어머님은 거기에 같은 대답을 또 하고 또 하고.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는 상황이었기에 슬프지만 웃음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커피를 가지러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순간 몹시 놀랐습니다. 엄마는 이내 다소곳하게 자세를 잡으시고는 두 손도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어머님께 고개를 숙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딸 이빠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딸만 맡겨놓고 인사 한번 못 드렸네요.”

당황하신 어머님과 저는 눈이 마주쳤고 어머님은 이내 우리 엄마의 손을 잡으시며 “아니예요. 얼마나 며느리가 이쁜데요. 딸을 잘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잠깐이었지만 내가 알던 그 우리 엄마가 잠시 왔다 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해맑게 웃던 모습은 없고 진지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던 우리 엄마.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해 잊히지 않네요. 잠시나마 예전의 모습으로 사돈에게 인사가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엄마는 본인의 진심을 짧게 전하고는 이내 다시 어린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좋아하는 쌍화차를 한 모금 드신 엄마는 “어머~ 맛있다! 너무 맛있



어! 한번 먹어봐!” 그리고는 다시 시어머님을 쳐다보시고는 “반가워~ 어쩔 고대로야. 얼마만이야~”라며 다시 엄마의 언어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돈끼리의 만남은 한 시간 남짓 이어졌고 두 분은 헤어지면서도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또 오겠노라, 또 놀러 오라며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엄마는 엄마인가 봅니다. 어렵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인사해 준 엄마에게 너무나 고맙고 마음이 아려 옵니다. 세상 모든 엄마, 너무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etter 07

딸이 건네준 차 한 잔

백승원 | 경기도 안산시

제가 34년을 다녔던 회사는 급여와 직원복지라면 모두가 부러워하던 대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러움도 잠시 세월은 쏠살같이 흘러 2023년 12월 31일 자로 저는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직 전 일찌감치 아들딸 두 자녀를 결혼시켰고 손주 둘은 초등학교 입학기에 접어들었으니 주변 사람들은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 너무 좋겠다며 앞으로 부부 둘이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제가 다시금 재취업을 생각하게 된 것은 단지 금전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취미생활에 도전해 보며 쉬을 누리려 해봤지만 역시 평생 일만 해온 사람이라 그런지 몸이 쭈서서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정년퇴직을 한 나 이 육십을 훌쩍 넘긴 사람을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더군요. 수십 장의 이력서를 쓰면서 저는 말로만 듣던 중장년층 재취업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가 끝나가던 작년 11월 초, 집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골프장과 콘도를 함께 운영하는 리조트에서 우연히 주차 안내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비록 제가 해왔던 일은 아니었지만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고, 결혼한 30대 딸이 그 건물에서 4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어 만약 혹시라도 채용된다면 딸과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빠가 주차 안내원으로 일하는 모습이 딸과 그 직장 동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심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마음을 뒤로하고 이내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아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야트막한 산자락에 위치해 있고, 심지어 주차장은 야외에 있어 방한복을 아무리 두껍게 입어도 매서운 추위와 칼바람을 피할 수 없겠더군요.

추위에 떨어야 하나 내심 염려되었는데 실제로 일해 보니 끝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을 안내하느라 오히려 손님이 물리는 주말에는 이곳저곳을 뛰어다녀야 해서 옷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땀이 났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리조트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주차 안내는 회사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첫 서비스이기에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활기차게 일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제게는 이곳

도 너무도 신명 나는 소중한 일터이지요.

다만 제가 정말로 걱정했던 것은 딸과 직장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는 일이 '주차 안내'다 보니 하루에도 많은 손님과 직원들을 만납니다. 근무 일수가 늘어나면서 가끔 직원의 누구 아버지가 아는 대기업 출신인데 지금 주차 안내를 하고 있다, 추운데 힘들지 않겠냐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 항상 밝게 웃고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사시는 분 같아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날따라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 더 춥게 느껴지던 날, 딸이 잠깐 시간을 내어 '우리 아빠 추운데 고생한다'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오더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하고 예쁜 우리 딸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소연아, 나는 말이다. 이렇게 추워도 정년퇴직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 행복하단다. 가끔 손님이나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시다며 따스한 위로의 말 한마디와 음료를 건네실 때 나는 너무도 고맙고 행복해서 몇 번을 울었단다. 오늘처럼 네 얼굴을 보며 차 한 잔 마시는데 내가 느끼는 이 추위가 전혀 춥지 않게 느껴지고 아주 따스하고 포근한 봄 날씨 같구나.”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아빠와 딸 서로 간에 흐르는 눈물로 마시는 딸이 건네준 차 한 잔의 행복을 두 분은 아시겠습니까?

Letter 08

타 쓰는 돈 꺼내 쓰는 돈

김경순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저희 국숫집 문을 열고 어르신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간간이 친구분과 들러 국수 그릇을 앞에 놓고 서로 ‘더 잡춰라’ ‘아니다. 나는 배부르니 자네나 더 먹어라’ 하시는 훈훈한 어르신입니다.

“오늘은 어째서 혼자 오셨어요?”

“아니여. 여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께 좀 있으면 올 거구먼. 올 적마다 국숫값을 먼저 낸다고 성화를 부려싸서 오늘은 내가 먼저 왔으니께, 어여 국숫값부터 받아.”

그리고 보니 두 어르신은 오실 때마다 국숫값 때문에 정겨운 실랑이를 하셨습니다.

손님 대다수가 연로한 어르신들인 시골 동네 국숫집에서만 볼 수 있는 정겨운 실랑이는 레퍼토리가 늘 똑같습니다.

“어허! 이 사람이! 내가 먼저 먹으러 가자고 했으니 내가 내야지? 안 그런가?”

“아따! 그깟 국수 한 그릇 월매나 험다구! 아무리 그려도 내가 자네한테 국수 한 그릇 못 사겠는가? 쓸데없는 소리 허덜 말고 어여 돈 집어넣어.”

“나 참! 먼젓번에도 자네가 돈을 내지 않았는가? 오늘은 안 되네. 나도 돈을 쓸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닌가벼.”

맨발로 달려 나와 서로 먼저 계산하려는 어르신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 선불로 계산하거나 함께 왔다 해도 “주인장, 여기 뒷간이 워디여?” 하며 화장실 가는 척 국숫값을 저에게 쥐여주며 눈을 찡긏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중에는 불뚱이 저에게 튈 때도 부지기수입니다.

“거참! 쥘 양반, 못 쓰겠구먼! 내가 계산한다고 돈 받지 말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얼른 도루 갖다주고 이 돈 받아.”

그러면 저는 먼저 계산한 분께 돈을 다시 가져다드립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불같이 역정을 내시면서 “어허! 쥘 양반이 요령이 그렇게 없어서야 어디 국수 장사해 먹겠어. 대한민국 천지에 돈을 받았다가 다시 내주는 집이 어디 있나. 어여 다시 넣어.”

그런 날이면 저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서 혼나고 저기서 혼납니다. 그래도 결코 싫지 않은 정겨운 모습입니다.

그날도 먼저 내려오신 ‘고배기 어르신’은 저만치서 힘겹게 걸어 내려오는 ‘교평리 어르신’을 유리창 너머로 내다보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자기 몸뚱이 하나도 추단하기 힘들어하면서 뭘 저렇게 끙끙대며 들고 걸어 온다? 또 쓸데없는 짓이나 안 허는가 모

르졌구먼.”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은지 기어이 문을 열고 ‘교평리 어르신’ 쪽으로 가시더군요.

얼마 후 함께 들어오신 두 분. 어느새 검은 봉지는 마중 나간 어르신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아, 자네나 먹지 이 무거운 걸 뭐 하려고 들고 왔는가?”

“며칠 전에 조카딸이 사 온 통조림인데 아 글썄 월매나 큰 걸 사왔는지 열 통도 넘게 들어있지 뭐가. 자네가 이거 좋아하는 걸 뻔히 아는디 어떻게 내가 혼자서 먹겠는가. 그래서 똑같이 먹으려고 절반 가져왔네.”

무거운 걸 가져오느라 수고했을 동무를 걱정하는 어르신과 관절염으로 걸음 떼기조차 힘들어도 동무와 맛난 것을 나누고 싶어 힘들게 들고 오신 다른 어르신의 정겨운 실랑이가 또 이어졌습니다.

서로 손도 잡아보십니다.

“위째서 손이 요로코롬 냉골인겨. 그리고 보니께 얼굴에 마른버짐도 잔뜩 끼고. 자네 어디 편찮았는가?”

“아니구먼. 아침에 세수하고 구루무를 안 발라서 그런가 보구먼 그랴”

“아니, 구루무가 다 떨어졌는가? 자네 국수 먹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내가 구루무 몇 통 줄 테니까.”

“어이구 아니구먼. 먼젓번에 자네가 준 것도 안적 반 통도 안 발랐구먼.”

몇십 년 동안 윗말 아랫말에서 짝한 우정을 나누는 두 분.

“그러도 내가 자네보다는 형편이 쪼매 나은 건 사실 아닌개벼. 생판 모르는 녀도 도와주고 이역만리 먼 나라 사람도 도와주는 세상인데 내가 내 동무 좀 도와주겠다스디 누가 뭐라 허겠는가.”

말씀 끝에 동무의 거칠어진 손과 마른버짐 핀 얼굴을 어루만지더니 주섬주섬 바지 안쪽에서 오만 원권 지폐 두 장을 꺼내셨습니다.

“자네, 아무 소리 말고 받게나. 안 받으면 앞으로 자네하고 나하고 얼굴 볼 생각하지 말게. 알겠나?”

그러나 다른 어르신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한사코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결국 필사적으로 드려야겠노라는 쪽이 이기셨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타 쓰는 돈이지만 나는 아직까지는 내 맘대로 꺼내 쓰는 돈일세. 그러니 고집부리지 말구 받게나. 안 그러면 자네하고 나하고 얼굴 볼 생각 말게.”

타 쓰는 돈, 꺼내 쓰는 돈! 이 얼마나 멋진 명언입니까.

동무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진한 우정이 묻어나고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사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최고의 명언입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가를 눈앞에서 보여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존경의 말씀을 올리며 두 분 우정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게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구수한 모습을 보는 저는 시골 장터 작은 국숫집 아지매입니다.

Letter 09

나에게 쓰는 편지

애청자

작 년 한 해는 우리 가족에게 매우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 사십 줄에 들어선 남편이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 함께 창업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관두고 갑자기 내 장사를 시작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 1년 넘게 차근차근 준비해 왔지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막상 출발선 앞에 서니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었다.

1년여의 창업 준비로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를 계기가 필요했다. 새로운 도전에 앞서 용기를 북돋고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방콕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창업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여행 당일 우리 가족은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드라이브할 겸 일찍 나왔다. 공항 근처에 다다랐을 무렵 서해를 배경으로 아기자기한 건물이 들어선 영종대교 휴게소가 눈에 들어왔다. 휴게소에 들어가

니 2층 벽에 빨간색 ‘느린 우체통’이 보였다. 우체통 앞에는 <사랑하는 이에게 소중한 추억을 전하세요. 이 우편물은 1년 후에 배달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느린 우체통을 보고 있자니 마지막으로 손 편지를 쓴 때가 언제인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았다. 문득 잊고 사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1년이 지나 전달되는 우편물이라...’ 오랜만에 기분 좋은 두근거림이 느껴졌다. 느린 우체통 안에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1년이란 시간이 흘러 느린 엽서를 받은 이의 표정을 상상해 보았다.

남편은 나에게 ‘소심적 문학소녀의 감성을 되살려 써보라’며 엽서를 구해다 줬다. 누구에게 쓸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1년 후의 나’에게 쓰기로 했다. 창업을 준비하며 지쳐있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였다. 내가 느린 편지를 받아볼 때쯤이면 이미 창업해서 한창 열심히 일하고 있을 터. 나 스스로에게는 한 번도 편지를 써본 일이 없어 한참을 고민하다가 세 가지 당부와 함께 말미에 남편에 대한 사랑도 적었다.

가게 일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름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 작년에 내가 느린 우체통에서 보낸 엽서가 1년이란 시간을 돌아 내 앞에 도착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찬찬히 엽서를 읽어 내려갔다. 1년 전의 나는 1년 후의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분명히 내가 쓴 엽서인데 처음 보는 것처럼 내용이 생경했다.

엽서에는 첫째, 돈을 좇기보다는 사람을 우선할 것. 둘째,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꿈을 품고 살 것. 셋째, 소중한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한다고 말할 것. 이 세 가지 당부가 차례로 적혀있었다.

엽서를 받고 나서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았다. 현실에 치여 사느라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고 가끔은 꿈도 잊고 살았다. 때로는 현실과 타협하며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해 왔다. 1년 전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잠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엽서 말미에 적힌 문구를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엽서 맨 끝에는 <여보~ 1년 후에는 우리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요. 부족한 나를 항상 사랑해 줘서 고마워요~>라고 적혀 있었다.

평소 쑥스럽다는 이유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남편에게 직접 하지는 못했던 말이다. 곧 날 잡아 눈 맞추며 남편에게 직접 얘기해 주리라 다짐한다.

엽서를 며칠 동안 읽고 또 읽는 내가 궁금했는지 딸아이가 무어나고 묻는다. ‘1년 전의 엄마한테서 온 엽서’라고 알려주었다. 아직 어린 딸아이가 엽서에 담긴 기다림의 미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 시간이 더 흐르면 어린 딸도 엽서 속에 스민 오랜 기다림의 가치를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삶이란 기다림의 연속이다. 삶은 느리게 오는 편지를 기다리며 인생을 깊고 진하게 숙성시키는 일 같다. 느리기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다.

터치 한 번으로 전 세계 어느 곳이나 휴대폰 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느린 우체통이 삶의 여유와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언젠가 우리 딸아이라도 느린 우체통을 통해서 기다림 끝에 맞보는 기쁨과 감동이 어떤 건지 느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Letter 10

오늘도 행복한 까닭은

임명희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행복은 우리 손에 닿는 꽃으로 꽃다발을 만드는 예술이라고 했다. 그래서일까. 난 매일 행복하다. 친구들이 곁에 있어서 그 행복이 가능했다. 친구들이란 꽃과 30년이 더 되는 세월을 서로 도란도란 나누며 우정이란 꽃다발을 만들어왔다.

행복이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매 순간 감정의 변화와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는데 내겐 그런 부정적인 날들이 없었다.

나의 친구들, 우리는 학창 시절 4인방이라 불렸다. 중학교 2학년 15살의 나이에 만나서 긴 세월을 함께한 보석 같은 내 친구들. 현숙, 미자, 정애 그리고 나.

요사이 내가 행복하다는 소리를 입에 더 달고 사는 이유는 그 4인방이 다음 주에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을 잡았기 때문이다. 여행지는 거제도의 숨은 보석이라 불리는 외도 보타니아로 정했다.

아침 햇살 아래서 마주한 윤슬처럼 영롱한 자태와 눈부심으로 다가온 기쁨과 기대가 나의 호흡을 가쁘게 하고 맥박을 요동치게 만든다.

30년 전 어느 날, 학교 졸업 후 각자의 직장에 다니던 우리는 외도로 떠난 적이 있었다. 보타니아 꽃밭의 장미들에 취해서 하늘을 향해 청춘의 특권을 노래 불렀고 변치 않을 우정을 다짐했다.

그런데 그만 우리의 우정이 잠시 흔들릴 사건이 생기고 말았다. 우리는 그날을 ‘테리우스 사건’으로 기억하자고 했다. 여행 중 혼자 여행 왔다는 한 남자를 우리 넷이 동시에 보고 말았다. 잘 생기고 우수에 찬 얼굴의 그 남자는 내 이상형이었다. 나는 그 남자에게 간택되기를 바랐지만 테리우스는 내 친구 현숙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 버렸다. 현숙이를 제외한 우리 셋은 잠시 실망했지만 곧 우정을 회복시켰다.

‘종호’라는 본명을 가진 테리우스는 약한 몸을 가졌고 자주 병원을 들락거렸다. 나머지 친구 셋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안정된 가정을 꾸려가는 동안 현숙이는 테리우스 종호의 병간호를 하며 결혼을 자꾸 미뤘다.

그러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사춘기를 훌쩍 넘을 때쯤 현숙이가 결혼식을 알렸고 우리는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식장을 향해 달렸다. 늦은 결혼을 한 만큼 현숙이가 더 많이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테리우스가 자주 병상 신세를 지는 바람에 현숙이가 생활전선에 나서야 했고 현숙이가 일하는 동안 친구의 꼬맹이들은 우리가 돌봐야 했다. 그래도 현숙이가 잘살아만 준다면 우리의 희생과 봉사는 우정이란 이름으로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렇게 세월은 흘렀다.

그런데 지난주 테리우스가 폐암을 이기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가버

렸다. 발인이 끝나고 돌아오던 차 속에서 현숙이가 여행을 제안했다.

“너희들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했다. 내가 한턱 단단히 쓸게. 내 아들 요번에 의대 합격한 것 알지? 축하 덕도 낼 겸 경비는 일절 내가 쓴다. 경비 걱정하지 마라. 부의금으로 쓴다.”

현숙이는 씩씩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우리 셋 중 그 누구도 현숙이의 밝은 얼굴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다. 그래도 우린 현숙이의 말이 끝나자 부라보!를 외치며 박수를 쳤다. 손바닥이 아프도록.

현숙이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며 그 누구도 외도 보타니아를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현숙이가 그곳을 여행지로 택했다. 현숙이가 꺼내지 않았다면 그녀 부부를 연결시켜 준 그 섬을 평생 입에 담지 못했을 텐데 그녀가 그 터부를 깨뜨려 주었다.

학창 시절 공부 잘했고 리더십 강했던 우리 반의 반장 현숙이가 다시 우리를 이끌고 미래로 향해 나아가려 한다. 한 번 반장은 영원한 반장이다. 고맙다, 현숙아. 잘 이겨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릴 향해 웃어 주어서. ‘외도’에서 보았던 붉은 장미잎처럼 지난날의 젊음과 화려함으로 다시 와주어서. 가자. 맛난 것 챙겨서 떠나보자.

그 옛날 어린 시절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맨살 드러내고 깔깔대며 사라져가는 우리의 젊음과 열정을 다시 끌어와 보자. 우리 넷이 힘을 합치면 분명 다시 끌어올 수 있을 거야. 우린 힘센 대한민국 4인방 아줌마들이니까.

너희들이 곁에 있어서 오늘도 행복하다. 나는 오늘도 손 닿는 곳에 있는 꽃들로 꽃다발을 만들고 있다. 떠나보자, 가즈아! 내 친구들. 정애, 미자, 현숙아~

Letter 11

인생이라는 레인 위에 선 우리

애청자

“**으** 파~ 음파.” 호흡에 집중하며 힘차게 물살을 가르다. 시원한 **ㅁ** 느낌의 파란색 수영복을 입고 시작점에서 반환점까지 50m 수영 레인을 씬 없이 질주한다. 일주일에 세 번, 하루 50분. 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힘차게 생동하는 시간이다.

40대 초반부터 시작한 수영 덕분에 지금은 7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함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 수영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이 육체뿐 아니라 마음의 노화마저 막아주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할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에 수영만큼 좋은 운동은 찾기 어렵다.

누군가가 나에게 젊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수영과 같은 생활체육으로 꾸준히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수영을 마치고 난 후의 성취감은 말할 것도 없고 지친 마음을 다스리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기 때문이다.

수영이 싫다는 딸아이를 억지로 수영장으로 이끈 것은 그래서이다. 딸아이는 지금 뭐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숨이 가빠서 견딜 수 없는 상태였다. 손녀딸이 갑작스럽게 걸을 떠난 후 딸아이는 불쑥불쑥 찾아드는 슬픔으로 움짱달짝하지 못했다. 뺏속 가득 채운 슬픔은 딸아이를 병든 고목처럼 바짝 마르게 만들었다. 자식을 잃고 어둠 속에 갇혀 버린 딸아이에게 단 한 뼘만큼이라도 숨 쉴 수 있는 창을 내어주고 싶었다. 수영이 그 창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확실히 내 경우에는 그랬다.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오면 수영으로 아픈 마음을 위무했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수영을 했고 슬픔이 턱 밑까지 차올라 울고 싶을 때는 물속으로 들어가 실컷 울고 나왔다. 딸아이에게도 수영으로 마음을 보듬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야 메마른 고목에도 다시 싹이 날 테니까 말이다.

함께 수영장에 간 첫날 딸아이는 회원들과 함께 호흡법을 배우고 수영장에 걸터앉아 발차기 연습을 했다. 딸아이는 수업 내내 지루한 표정으로 허공만 쳐다볼 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딸아이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불멘소리를 했다.

“나 도저히 못 하겠어. 재미도 없고 적성에도 안 맞아.”

“별써 포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한 달만 다녀봐. 우리 딸이랑 같이 수영하면 엄마가 얼마나 행복하겠니?”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고 싶은 엄마의 속을 헤아린 건지 딸아이는 투정을 부리면서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수영장에 나왔다.

“다리를 쭉 펴시고 몸에 힘 빼고 무릎이 접히지 않게 하세요.”

얼마 후 딸아이는 자유형 팔동작을 배운 후 실전에 들어갔다. 킁판 을 잡고 배운 대로 팔을 번갈아 움직이라 다리를 쭉 뻗어 발장구를 치랴 머리를 물 안에 넣었을 때 유선형이 되도록 머리 각도까지 신경 쓰랴 딸아이는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았다.

어느새 50분이 훌쩍 지나갔다. 웬일인지 강습이 끝났는데도 수영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엄마, 나 자세 좀 교정해 줘~” 그러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곁에서 자세를 꼼꼼히 일러줬다.

“어때?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재미있지? 가슴도 탁 트이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긴 해. 잡생각 없이 시간도 잘 가고.”

“그래 꼭 잘해야 한다고 부담 갖진 마. 물에 익숙해지며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만들어 가면 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수영장 레인 한 바퀴를 큰 어려움 없이 부드럽게 헤엄쳐 돌아오는 딸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생기라고는 한 점 찾아볼 수 없던 딸아이가 만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밝게 변해 있었다.

“수영할 때만큼은 복잡한 생각이 싹 사라져. 그러다 목표점에 도달하면 우울한 감정까지 씻겨 내려가는 것 같다니까.”

눈빛을 반짝이며 한참 떠들던 딸아이의 얼굴이 문득 어두워진다.

“엄마, 우리 애는 하늘나라로 떠났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건강이 나 관리하면서 즐거워해도 되는 걸까?”

가늘게 떨고 있는 딸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일단 인생이라는 레인 위에 섰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거야. 힘들다고 멈춰 서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 레인 끝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야 돼. 알았지? 네가 행복하

게 지내야 우리 아가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

우리는 다시 레인 앞에 섰다. 내가 먼저 힘차게 발차기하며 앞을 향해 물살을 가르고 나갔다. 곧 딸아이가 뒤를 따른다.

아마 딸아이라도 지금 나처럼 물속에서 울고 있을 것이다. 슬픈 만큼 실컷 울고 수영장 한편에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내려놓고 나왔으면 좋겠다. 한 구간 한 구간을 헤엄쳐 나갈 때마다 딸아이의 마음속에도 근육이 단단해지기를 희망해본다.

딸아이와 함께 수영을 다닌 지도 어언 3년여. 고목처럼 말라비틀어진 딸아이의 마음에도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고 있다. 굵은 어깨를 활짝 펴고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요즘은 종종 머리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사위와 함께 수영장을 찾는 눈치다. 수영을 하면서 아픔을 내려놓는 이치를 깨달은 것 같다.

나 역시 손녀딸에 대한 그리움을 수영으로 달래면서 버거운 삶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내고 있다. 레인의 끝이 어디일지,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지만 도중에 멈춰서는 일 없이 계속 레인 끝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언젠가 내가 레인 끝에 도착하는 날 사랑하는 손녀딸이 그곳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다. 손녀딸이 “할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라며 내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나는 웃으면서 손녀딸을 끌어안고 얘기해 줄 것이다.

‘그동안 정말 그리웠노라고. 너무나 보고 싶었노라고.’

Letter 12

우리 집 못난이

애청자

얼 마 전 30년 지기 친구 미정에게 갑작스레 연락이 왔다. 그 연락은 친구 남편의 부고 소식이었다. 미정이는 늘 남편 자랑이 취미였다.

“우리 남편 사업 잘돼서 이번에 일을 또 늘렸어. 그리고 우리 남편은 말이야 정말 부지런해. 남들 다 자는 새벽에 운동까지 한다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친구였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고라니.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도착 후 미정이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늘 당당하고 활기찼던 친구가 얼굴이 반쪽이 돼 있는 거다. 그 모습은 세상 모든 슬픔을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 자리에 앉아 친구를 위로하면서도 문득 이상하게 집에 있는 나의 못난 남편 생각이 났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기만 하다. 하루 중

일 소파에 눕거나 TV만 보는 게 일상이고 사업도 여러 번 말아먹었다. 처음엔 여행 사업을 하겠다며 큰소리치더니 1년도 못 가 망했고 카페는 6개월 만에 접었고 농산물 유통을 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빚만 남겼다.

그런 남편이 매일 집에 있는 게 나에겐 숨이 막히고 한숨만 나오는 일이었다. 빈둥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알뜰고 짜증이 났다. 그런데 친구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이상하리만큼 밍기만한 남편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다.

생각해 보면 내 입장에서 남편은 늘 답답하고 못났지만 주변에서 참 인상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다. 예전에 아웃렛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보자면 그때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겨울 점퍼를 발견했는데 옷 가게 주인이 더 이상 할인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나는 몇 번이고 “만 원만 더 깎아 달라”고 사정했지만 가게 주인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서글서글한 말투와 표정으로 “사장님, 조금만 더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 하네요” 말했다. 그 말에 가게 주인이 갑자기 웃으면서 “알았습니다!” 하더니 만 원을 더 깎아주는 게 아닌가.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대체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주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내지?’

그날 기억은 늘 기가 차서 이따금 웃으며 떠올리곤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남편의 그 서글서글한 모습이 참 따뜻하고 고맙게 느껴졌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남편은 늘 그렇듯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졸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평소와 다르게 왠지 짠하고 어쩐지 마음이 묘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다. 물론 여전히 한숨 나올 때가 많다.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만지는 모습, 어디 나가서 뭐라도 좀 해보라는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누는 모습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면 가끔은 ‘내 팔자가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 평소엔 큰 병 없이 지나가던 내가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고 며칠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담낭염, 그러니까 쓸개에 염증이 생긴 거라고 했다. 수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며칠간 입원하며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누가 나를 가장 걱정했는지 아는가? 우리 부모님도 아닌 자식들도 아닌 친구 지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남편

이었다.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실에 딱 붙어 앉아서 내가 뭘 먹고 싶다고 말도 안 했는데 “여보, 딸기 좋아하지? 내가 딸기 사 왔어” 하며 과일이며 음식을 사다 줬다. 그러면서 내 손을 꼭 잡고 “여보, 내가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빨리 나아야 돼” 말하는데 남편이 그렇게까지 나를 걱정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결혼하고도 20년이 넘도록 저런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남편의 얼굴은 꼭 어린아이처럼 걱정으로 가득했다.

남편이 가고 그날 저녁엔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이런 말을 했다.

“환자분 남편분, 참 따뜻한 분이세요. 아까 간호사실에 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진짜 아내분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코끝이 찡했다. 나한테는 늘 부족하고 못한 모습만 보여주던 사람인데 그 못한 사람이 나를 위해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었구나.

드디어 퇴원하는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

“여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당신 아프니까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알겠더라.”

퇴원 후 집에 돌아온 나는 남편의 코고는 소리도 소파에 퍼져 있는 모습도 이제 그렇게 밍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어쨌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단지 그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그냥 고마웠다.

며칠 뒤 동네에서 나눔 행사를 한다기에 남편도 자기가 아끼지만 더 좋은 사람을 위해 쓰겠다며 비싼 옷 한 벌을 행사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다른 주민이 남편에게 말하는 걸 듣게 되었다.

“이건 더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나눔 하시는 거예요? 인상도

좋으신데 마음씨도 참 따듯하시네요.”

남들은 다들 남편의 좋은 점을 알아보는데 나는 왜 그동안 남편의 못난 점만 보며 짜증 냈을까.

얼마 뒤 남편이 갑자기 산책을 가자고 한다.

“여보, 아직 춥긴 하지만 그래도 공기 좋잖아. 잠깐 나가자.”

그 말을 듣고 마지못해 걸옷을 챙겨 입고 따라나선다. 공원에는 찬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있었다. 추운 바람에 내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아 두 손을 주머니 속에 넣으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내 손을 덥석 잡더니 말했다.

“손이 이렇게 차가워서 어떡해.”

그러고는 내 손 하나를 자기 재킷의 호주머니 속으로 넣어주는 거다.

“어때 따듯하지?”

순간 남편의 손과 함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간 내 손이 세상 가장 따듯한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살면서 처음으로 남편 손이 이렇게 든든하고 포근하게 느껴진 건 아마도 그날이 처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여보, 나 다시 시작해 보려고…”

“뭐? 또 사업하겠다고?”

“그게 아니라 물류업체에 취직했어. 이제 나도 가장 노릇 제대로 해야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다. 늘 못나고 부족하기만 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사람은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큰 존재라는 걸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바람이 차가웠던 그날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아 호주머니 속에 넣어주던 따듯함은 내 평생 잊지 못할 온기로 남을 것 같다.

Letter 13

남자의 시장바구니

진상용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주 말을 맞아 현관문 열고 들어설 자녀들한테 차려줄 ‘집밥’ 메뉴며 반찬 가짓수 놓고 고민하던 아내가 장을 봐오랍니다. 생업과 직장 때문에 각각 살다 보니 몇 주만의 온 가족 상봉입니다. 비록 한두 끼니나마 든든히 잘 먹고 싶은 어미로서의 인지상정이요, 아비 마음인들 다를 바 없습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들이 인근에 있어 후딱 다녀오려고 나서는 데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다는 온누리상품권을 건네주는 아내. 시장까진 꽤 먼 거리라 선뜻 맘 내키지 않는데 잔소리나 다름없는 신신당부까지 덧붙입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하니 영수증 잘 챙겨오고 정찰제가 아닌 대선 무조건 깎으랍니다.

배차 간격이 뜬한 마을버스를 타고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적어준 구매 목록 순서대로 어시장부터 들어섰습니다. 멀거나

가까운 바다의 온갖 것들을 그물로 걸러내어 죽었으면 죽은 대로 펄펄 뛰는 생물들은 그대로 늘어놓은 어시장. 숨 붙은 생명체의 몸부림을 싱싱한 펄떡임으로 포장하는 상인들의 호객 경쟁이 무색할 만큼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사람 더 모인 곳으로 눈길 발길이 끌려갑니다. 세상 경륜으로 말씀씨 단련된 중년 여인과 한 마디라도 밀리면 시장꾼들 전체의 망신이라 여기는 듯한 생선 장수의 입담을 눈여겨보며 나도 능숙한 척 흥정이란 걸 시도해 볼 작정이었으나 생각일 뿐 결국 주인장이 답아주는 대로 받아 들고 말았습니다.

이문 안 붙이고 원가에 퍼준다는 상인의 말을 죄다 신뢰하진 않지만 비늘 덕지덕지 붙은 비닐 앞치마 차림으로 추운 날씨에 생선 한 마리 더 팔고자 애쓰는 남자 모습을 보며 가장으로서의 동병상련이 느껴졌습니다.

아울러 어린 시절 고향 장터에서의 흑백 기억이 아른아른 되살아 납니다. 열두어 살 나이, 설날을 며칠 앞두고 대목장 보러 가시는 아버지를 따라나섰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제사가 다가오면 아버지 꼭 맏이인 나를 장터에 데려가십니다. 시오리 안팎인 읍내에 가면 과자봉지라도 손에 들리지만 짐이 무거운 아버지 걸음에 맞춰야 하니 따분한 동행이기도 합니다.

강 양쪽 마을 사람들이 울력해 세운 섣다리를 건너고 삼방갈림 길목에 다다르자 멀찌감치 지켜보던 중간 수집상이 마중하듯 다가옵니다.

“어이구~ 바깥사돈 양반, 여러 과수 만에 만나니 반갑소. 흠흠”

말끝마다 흠흠 소릴 달고 살아서 별명이 된 ‘흠흠 거간꾼’은 이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 누굴 만나든 엉터리 촌수를 만들어 붙입니다. 아

버지 지게 위의 고추 포대는 이미 남자 손에 넘어갔습니다.

“잘 말리긴 했소만 때가일이 영...”

“말물만 따로 손질해냈던 거요. 그리고 단골 가게에 갖다주기로 미리 얘기가 돼 있다니.”

“아따, 아무리 산골에 박혀 살지만 바깥세상 물정 좀 알고 나오슈. 명절 쇠려고 한꺼번에들 가져나오니 시세 떨어지지 않고 못 배겨나오.”

“그래도 지난 장날 금보다 더 쳐줘야 넘겨줄터.”

“언제 적부터 단골인데 뭘 속고 속이겠소. 보자~ 열아홉 근에서 좀 빠지네. 흠흠.”

대저울을 내려놓으며 큰 인심 쓰듯 자기 마대에다 옮겨 붓는 사내.

“무슨 되도 않는 소릴, 스무 근도 넉넉히 달았구먼. 여러 말 할 거면 도로 내놓우.”

장터까지 가면 몇 푼이나마 더 받으려면 길목지기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한 게 아쉬워서 부대 자루를 맞잡고 버텨보는 아버지.

“아, 알았어요. 점잖은 사돈 물건이라 잘 쳐 드릴 테니 다른 사람들한테 더 주더라 소문내면 절대 아니 되요. 흠흠.”

손때 반들반들한 전대를 열어 계산을 서두르는 너구리 사내. 그 외 두세 가지 자잘한 곡식들도 함께 넘겨졌습니다.

명절 대목 장터는 팔려는 사람과 살 사람이 뒤엉켜 어수선했습니다. 아버지 발길은 단골 생선가게로 향합니다.

“조기 한 두름, 명태 한 쾌, 민어도 세 마리 줘요. 차례상에 올릴 거니 물 좋고 모양 반듯한 걸로.”

곡식 수집상과는 끝돈 한 푼 놓고 옥신각신 다투었지만 조상님께 올릴 제수 가격을 흥정하는 것은 불효란 걸 어린 나도 가슴에 새겨 둡니다. 푸줏간에 들르고 과일 과자류 챙기고 흑여 빠트린 게 없는지

확인하고 든 돈 난 돈을 일일이 헤아려 본 아버지는 남은 동전으로 길가 난전에서 따끈따끈한 찜빵 몇 개를 사주십니다.

“너 다 먹어라. 난 아침을 든든히 먹어서 안 들어간다.”

한나절 넘도록 아버지 고무신 뒤꿈치를 따라다닌 나는 허기를 핑계 삼아 혼자 먹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설 때보다 더 무거운 지게를 짊어지고 난 찜빵을 만들어서 가벼운 것들을 걸머진 채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빨라지고 걸음은 더딥니다.

그 뒤로도 내 잔뼈가 단단히 여물 때까지 집안 애경사 준비만은 꼭 동행하시던 아버지의 수십 년 전 모습이 이곳 재래시장 골목 끝으로 아른아른 멀어져갑니다. 문득 되돌아보니 내 자녀들과 같이 시장에 와본 적이 없었네요.

정육점을 거치고 마지막 구매 품목인 과일과 채소를 챙겨 담자 초과 상태인 장바구니. 아내가 건넨 상품권 외에 찜짓돈을 보태고서야 적어준 대로 장을 다 봤습니다. 목직한 짐을 들고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간간한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생했수. 물건도 싱싱한 걸로 잘 골랐고 물가가 죄다 치솟았다던데 괜찮은 값에 샀네. 이제부터 시장가는 건 당신 담당이요.”

늘 빠듯한 살림 꾸려가느라고 절약 중독증에 걸린 아내한테 핀잔 몇 마디는 들을 각오했는데 지레 주눅 들었던 마음이 비로소 훌개분합니다. 가게 주인들이 부르는 가격대로 주었고 자잘한 품목은 영수증을 받지 않았으며 트집 잡히지 않을 만큼의 비상금 보탠 사실을 눈치채고도 다른 속셈이 있어서 저리 능청인지 알 순 없지만요.

손 바쁘게 일 시작한 아내 뒤에서 재료 손질을 거둡니다. 굳이 생색내고자 해서가 아니라 자식들 입에 들어갈 먹거리 가격을 깎지 않은 게 오늘 장보기에서 가장 잘한 아비 노릇인 듯싶습니다.

Letter 14

호빵과 아들

김호선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나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 퇴근하고 집에 와도 할 일은 많다. 퇴근해도 다시 집으로 출근하는 기분이라 항상 퇴근할 때면 내 얼굴에 표정이 없다. 오죽하면 아들이 “엄마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

저녁 식사 준비로 정신이 없는데 계속 첫째 아들이 한 번, 둘째 아들이 한 번 부엌을 기웃거린다. 그래서 물어봤다. “와? 뭐 땀시?” 하지만 별말 없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다. 나는 저녁 준비로 이미 몸도 마음도 다 힘들어서 아이들의 행동에까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저녁거리를 전자레인지에 돌릴 일이 있어 전자레인지를 열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전자레인지 안에는 하얀 호빵이 있었



다. 내가 요 며칠 감기로 기운이 없어 보였던지 첫째 아들이 계속 먹고 싶은 게 없냐고 물었다. 겨울이 되면 언제나 편의점에 있는 호빵을 좋아했던 지라 나는 주저 없이 호빵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첫째 아들이 하교하는 길에 호빵을 사서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 둔 것이었다. 엄마인 내가 그것을 보고 조금이나마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부엌으로 오는 아들들을 그렇게 나무랐던 것이었다. 아들들, 이리 부족한 엄마에게 와줘서 고마워!

이달의 손편지

여성시대의 추억

전수경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안녕하세요?

때는 바야흐로 무려 46년 전인 1979년 이른 겨울에 올라가 봅니다.
당시 저는 스물한살로 지금은 전북 익산인 이리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친구가 몸이 아파 전주 예수병원(현)에 입원을
했어유.

저는 문병을 가기위해 기차타고 전주역에서 내려 버스를
갓타고 병원에 갔다가 지진이 너무 지체되어 전주역까지
가기위해 택시를 타려고 서성이며 택시를 향해 기웃거리고
있었어유. 그때는 협송이 성행 했는데 마침 50대인 모이는
아저씨가 빈차에 안르시길래 제가 재빨리 전주역이요 라고
외쳤어유. 이내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셔서 차에 오른 안르유

합승을 했어요. 한참을 진중히 가던중

아기사! 지갑을 병원에 놓긴 온거예요 가던길 되돌릴 수
없는 안전부착 해 있는데 그 아저씨가 당황한 저에 상황을
간파하셔는지 경치 손가락을 자기 입술에 갖다 대시더라고요.
순간 저를 도와 주시겠다는 의사의 직감이 들었어요.

잠시 안도의 한숨을 숨쉬며 내쉬었군 목적지에 당도해
내리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못드리고 그게만 살짝 숙이며
택시에서 내렸답니다.

그리고 택시가 후회 떠난후 바쁜 후회가 일습했어요.

연락처를 여쭙고나 다음에 같았다고 했어야 하는데 계면적이나
어찌할 바를 몰라했던 제가 바보 같고 야속 하더라고요.
여차 후 그 고마운 아저씨를 떠올리며 평소 사무실에
출근하면 어김없이 청취하는 임국희 씨가 진행 하시는
방송에 미담 사연을 보내기로 작심하곤 생생하곤 신중하게
편지 보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방송에
소개 되어 한들짝 놀랐어요.

임국희 씨가 낭랑한 목소리로 제 사연을 읽어 내리 가시는데
어찌나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너무나 신바람 나서 감동감동

뛰었는데 가족에게 기쁨을 전할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
했어. 그때는 통신 수단이 전무한 상태였거든.

집에 전화가 없었어.

그냥 혼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되려 시간만 아타게
가다였어. 그날 떠나 시 간이 내그렇게 더디 가는지 꽤
변신계가 근감 나지 않았나 라는 의침이 들었어.

이유는 제복에 타는 후 뭐든 집에 와서 남동생과 언니와
방송 사랑에서 장사는 가치도 돌아온 아버지 영자에게
흔들감을 떨며 생중계 처럼 구사를 했던 소감도 제복 하거든.

민수가 기꺼이 축하해 주며 흐뭇해 하셨고 다음날 영자는
동네 사당들에게 딸 자랑을 하시기에 여념이 없으셨으며

선물 도착하면 나누어 주시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셨답니다.

때마침 소식을 전해 들으셨는지 가까이 살고 계시는 이모가
저를 호출 하셔서 집으로 찾아 뵈었는데 저랑 동갑인

딸에게 제가 보는 앞에서

「재 좀 닦아라 근면 성실 하라 방송국에 글 써서 상품도
타는데 너는 돈도 아껴줄 모르고 놀러나 다니고 돈데 해
어디다 써먹어 당감 글 좀 써봐」 하시며 아가 한통을

치시는데 제가 다 민망해 귀구멍을 찡긋 싶더나요.
 그해한 가운데 드디어 방송국에서 소포가 도착해 설렘 가득한
 서둘러 개봉을 해보니 핸드백, 손세지 한송자, 바구니에
 가득찬 행복 책자 등 너무너무 두껍혔어요.
 명사는 정신없이 소분해서 저에게 배달을 요청 하셔서
 정해진 날짜음으로 성부음을 하였답니다.
 동네 이그신들로 부터 칭찬을 받으면서요. 그때의 그 감격
 그 감동은 평생 잊을 수가 없네요.
 비록 제 의지와 상반없이 핸드백은 기억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간직했던 볼거릴 책이 아늑다운 추억의
 산물 이기에 행복감에 넘쳐옵니다.
 그리하여 명원히 소장하고 싶은 「바구니에 가득찬
 행복, 이란 책을 다시한번 고독 품으려는 결심을
 했어요. 아울러 여성시대로부터 추억 소환에 가슴 벅차
 올랐고 찾습니다 에 다가서는 동기부여를 안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시대 사진방



[4794]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울 마나님과 저입니다. 고생하는 정해숙 마나님께 고맙다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6567] 해산물 장사를 하고 있어요.



[2734] 생선 좋아하는 가족 주려고 생선 200마리 사서 이렇게 손질하고 있어요.



[2659] 연근 작업 중입니다.



[5849] 저는 지게차로 산업용 세척제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에도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요.



[6982]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나와 오이를 따니다.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

여성시대 가족 김선녀 님이



보내주신 사면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큰 아들이 결혼식을 올렸다.



혼주는 처음이라 힘들어도 너무 힘들었다.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한 잔 기분 좋게 경치고
나는 그대로 뺏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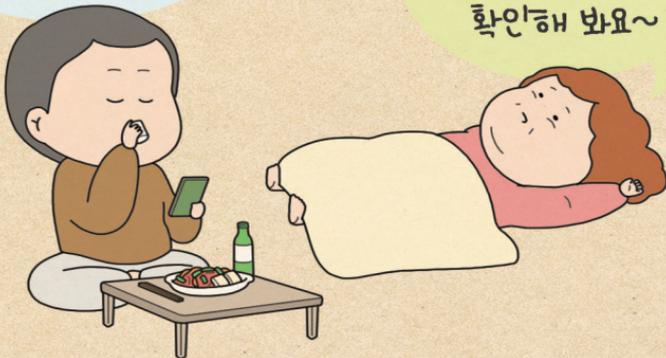
A 선배가 족의금을
백만 원이나 했어~

잘못 보낸 거 아냐?
입금할 때 이항나를
더 입력할 수도 있잖아.



그 선배 부자야~
참석 못 해서 미안하다고
문자도 온 경.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선배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봐요~



여칠 ^하
여칠

그럼 그렇지~



술김에 이하나를
더 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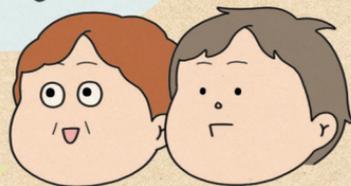
정확한 사실은 여칠 후에 알 수 있었다.
술김에 이하나를 더 본 남편은
창피한 마음에 돈을 돌려줬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

그도 그럴 것이
몇 년 전 맹장 수술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금을 수령 후.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내가 다 사줄게
보험금 많이 들어왔어!

오 정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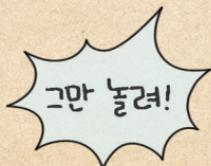
맘 놓고 먹으라며 땡땡 거렸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입금 내역을 보니
200만 원이 아닌 20만 원이 딱!

세상 떠나간 듯 실망했던 남편의 얼굴이 떠오른다.

아무리 사람이
보고 싶은 대로 본다지만
어떻게 매번 0하나를
더 붙일까.



남편의 동그라미 사랑.
이 정도면 지독한 짝사랑 아닌가요?



직원들과 '같이' 커다란 '가치'를 창출하다



IBK기업은행 북천안지점 거래고객
(주)에이티이엔지 강현규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주)에이티이엔지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기업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현규 대표는 직원들을 단순히 종업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여기고 대우함으로써 유의미한 결과와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직원들의 행복을 통해 회사의 발전을 이루고
그렇게 창출된 가치는 더 큰 가치를 만들어 선순환된다.

에이티이엔지는 반도체 공정용 물
류장비 제조 및 정밀부품 가공업체
다. 2015년 설립하여 반도체 공정용
물류설비 제조, 이차전지 신소재 분
야, 정밀부품가공, 방산산업, 해킹방
지용 모니터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에이티이엔지는 국
내 최대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S사의
협력사로 반도체 공정용 물류설비인
OHT Vehicle을 제조하여 납품한다.

이는 에이티이엔지의 주력사업 중 하
나로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
다. 지난해부터는 미래 먹거리 사업
의 하나로 이차전지의 신소재 분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이티이엔지는 2018년, 2022년
고객사의 우수협력사 선정, 2019년
기술평가우수기업 인증, 2020년 100
만 달러 수출탑 수상에 이어 2021년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증에 의한



충남유망중소기업 선정, 2022년 기술혁신중소기업 인증 및 우수벤처기업 선정, 2023년 ESG 우수중소기업 선정 등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업력이 길지 않지만 이처럼 업계에서 인정받으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에이티이엔지의 기술력 덕분이다. 에이티이엔지의 인력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 부분 56%, 연구 개발 4%로 절반이 훨씬 넘는 인원이 기술 개발 인력에 집중되어 있다.

에이티이엔지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 기술은 반도체 공정용 물류장비인 OHT Vehicle 제조 기술이다. OHT Vehicle은 반도체 제조공정 간 웨이퍼 이송 장치로 반도체 공정에 무척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장비다. 현재 에이티이엔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품 등 주력사업에 관한 9개 특허 기술과 2건의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2건의 관련 특허를 출원 중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에이티이엔지는 창업 후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루다가 2019년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회사가 힘들어졌다.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협력사 S사 관련 매출이 줄면서 전체 매출이 대폭 하락했던 것이다. 당시 회사가 어려웠지만 강현규 대표는 직원들의 월급 한 푼 깎지 않고 모든 인원을 유지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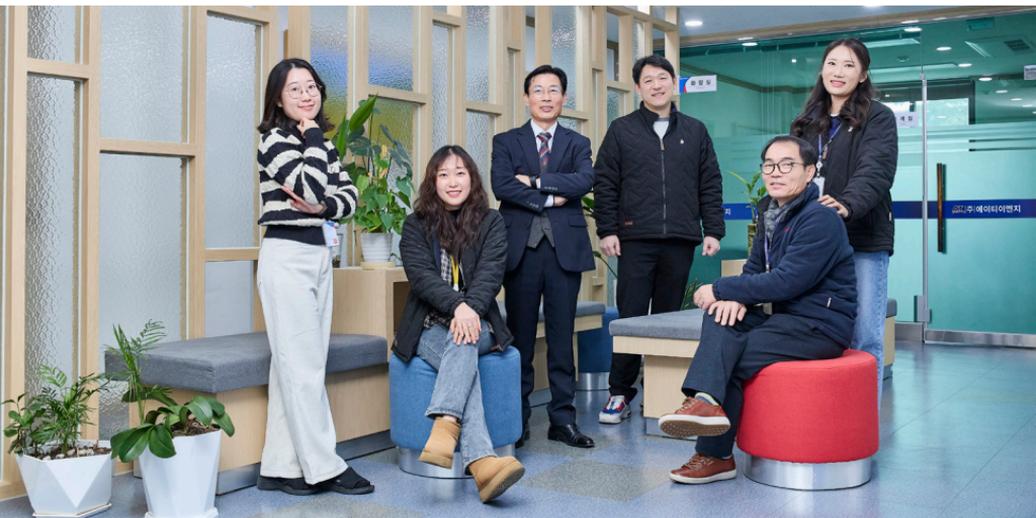


런 회사 오너의 행보는 직원들에게
 믿음을 줬고 빠른 시간에 매출을 회
 복하며 회사가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이런 일화에서도 볼 수 있듯 강현
 규 대표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산
 으로 생각한다. 회사는 대표 혼자 이
 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함
 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
 로 중소기업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
 과 직원 기숙사 및 사택 운영, 기념일
 축하, 주택자금 대출 지원, 자녀 학자

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학위 취득을 적
 극 지원하여 직원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발전함에 따라 사
 회공헌활동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
 들어 나가고 있다.

“기업의 발전은 결코 혼자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도움도 필요하고 모든 관
 계가 유기적입니다. 그 때문에 기업의
 이윤은 직원들에게 분배되어야 하고



나아가 사회에 환원되어 선순환을 이루어야 기업도 지속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IBK기업은행 북천안지점 김영호 지점장은 “에이티이엔지는 외형적인 확장이 아닌 내실의 확장을 추구하는 진정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회

사의 이윤추구뿐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공헌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본받을만한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처럼 좋은 기업이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이 서포트하겠다”고 약속했다.



IBK기업은행 북천안지점 김영호 지점장(왼쪽)과 (주)에이티이엔지 강현규 대표

1 (주)에이티이엔지 강현규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기술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라.
2. 기업의 이윤뿐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성장을 추구하라.
3.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라.

(주)에이티이엔지

대 표 강현규
전 화 041-588-9887

주 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246-61
홈페이지 <https://ateng.kr/>



일반인도 국가대표처럼, 모두에게 최고의 의료를



IBK기업은행 방배동지점 거래고객
유나이티드병원 김현철 병원장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유나이티드병원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과 정밀하고 세심한 진료를 바탕으로, 국가대표 선수부터 일반인까지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받는 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나이티드병원은 2007년 강남 도곡동에서 설립하여 2019년 하남 미사지구로 확장 이전한 이후 정형외과·신경외과 등 7인의 의료진과 60여 명의 직원이 함께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김현철 병원장은 2001년부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첫 번째 상임 주치의의 맡아 2006년 독일 월드컵까지 함께하며 스포츠 의료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중심의 수술·비수술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스포츠 특성화

치료, 재활, 부상 예방에 중점을 둔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치료하며 쌓은 노하우를 일반 환자들에게도 적용하여 빠른 회복과 운동 복귀를 돕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체육 및 동호회 활동 증가로 일반인들도 프로 선수 수준의 고강도 운동을 하는 시대에 맞춰 최적의 치료 시스템을 운영한다. 의료진 간 긴밀한 협진과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최적의 치료법을 찾으며, 간호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재활운동



사 등이 협력하여 환자의 빠른 회복을 지원한다. 유나이티드병원은 '국가대표 수준의 치료를 일반인에게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환자들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주 찾는 병원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일반 환자들의 접근이 어려울 것이라는 오해도 있었지만, 점차 많은 이들이 병원의 철학을 이해하며 신뢰하고 찾고 있다.

2019년 하남미사지구로 확장 이전 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며 병원 운영에 큰 위기

가 닥쳤다. 그러나 유나이티드병원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감염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입원환자 격리 및 보호자 없는 병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추진해 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안전한 입원 환경을 완성했다.

유나이티드병원은 '정확하고 신속한 진료, 꼭 필요한 치료, 빠른 일상 복귀'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다발성 신체 증상을 통합적으로 진료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의료진간 호사의료기사가 등이 협력하여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유로운 휴가 사용,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운영, 복지물 운영, 전문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해 직원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필수 진료과 및 응급환자 치료 기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되는 것이 유나이티드 병원의 목표다. 하남 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의료 환경이 뛰어나지만,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나이티드병원은 지역 응급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필수 의료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IBK기업은행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의료와 금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IBK기업은행 방배동지점 이낙구 지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의 협약으로 출시된 의료사



업자 전용 상품을 통해 적기에 대출을 지원하는 등 의료와 금융이 결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소중한 인연인 만큼, 앞으로도 유나이티드병원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든

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서로가 의지하며 성장해 온 만큼, 앞으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겠습니다”라며 유나이티드병원의 밝은 미래를 기원했다.



IBK기업은행 방배동지점 이낙구 지점장(왼쪽)과 유나이티드병원 김현철 병원장

① 유나이티드병원 김현철 병원장의 운영 노하우

1.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말아라.
2.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
3. 열린 마인드로 나아가라.

유나이티드병원

병원장 김현철
전화 1833-2275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48 3~5층
홈페이지 <http://myunited.net/>

코너 속 편지

사랑 사랑 사랑

81 네 살 차이

88 일말상초의 법칙

96 짠맛 아니고 사랑 맛

여자는 모른다

102 쇼핑의 즐거움

107 현실 남매



일러스트 | 조신애

사랑 사랑 사랑

네 살 차이

애청자

“여보, 커피 마실 거지?”

“어어, 맨날 먹던 대로 달달하게 부탁해.”

“달달하게. 오케이!”

남편과 함께하는 일요일 아침에 완벽한 비올로 탄 ‘프림 커피’를 마시면서 여성시대 사랑 사연을 듣다 보니 20여 년 전 아련한 옛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아~ 그렇다. 막 대시 받고 연애하던 시절.”

“참나,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럼 당신도 사연 보내보든가!”

“그렇까? 나 진짜 보낸다? 지금 쓴다.”

“보내라 보내! 옆에서 커피 타 주는 남편을 두고 그렇게 그리운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주 동네방네 자랑하면 되겠네.”

그래서 저 진짜 사연 보내봅니다.

지금이야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지 오래지만 옛날에는 회사에서 콧바람 좀 날렸거든요. 그때 그 시절 이야기. 혼자만 알고 있 기엔 아까우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똑똑. OO컴퍼니에서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앉으시고요. 뭐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커피 한 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시 저는 업무상 거래처에 방문할 일이 많았어요. 그날도 새로 출시된다는 제품 소식을 듣기 위해 담당 회사에 들러 가벼운 미팅을 하던 참이었죠.

“지금 마땅한 게 없어서요. 프림 커피이긴 한데 맛있게 드세요.”

그날 만난 남자 직원은 저보다 어려 보이는 얼굴에 말도 횡설수설 하면서 정신이 없는 게 딱 봐도 연차가 오래되지 않은 듯싶더라고요.

“여기, 보고서입니다. 혹시 필요하실까 봐 2부 복사해 놓았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좀 살펴볼게요.”

사실 그렇게까지 긴장할 자리는 아니였거든요. 그런데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땀을 빼질빼질 흘리는 남자를 보니 저도 괜히 같이 긴장 돼서 평소보다 더 꼼꼼히 보고서를 읽어봤어요.

“여기 실험보고서가 누락된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실래요?”

“아, 실험보고서. 네, 잠시만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직원이 대답은 빠릿빠릿한 데 뒤에 흘린 듯 잔뜩 일이 빠져서는 한 20초 동안 제 얼굴만 뻘히 쳐다보더라고요. ‘뭐지? 실수를 해서 몸이 굳어버렸나? 혹시 내가 무

섭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지금 준비가 어려우면 좀 이따 오후에 메일로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잠시만요.”

그는 대답을 마치자마자 회의실을 썩하고 나가더니 잠시 후 두꺼운 종이 봉팅이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건네받아 첫 장을 넘기는데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에는 노란색 메모지가 붙어있었고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데이트 신청합니다.>

저도 일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해서 그 남자분을 쳐다봤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탄청을 피우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대시 받아서 우쭐한 마음보다 ‘이 사람 뭐야? 회사가 장난이야?’ 하는 당황스럽고 어이없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펜을 들고 그 바로 밑에 <죄송합니다> 글자를 꺾꺾 눌러줬죠.

“큰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혹시 몰라서 지금 받은 자료 메일로도 보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얼른 마무리하자는 생각에 그 사람에게 보고서를 돌려주니 이미 아까부터 결눈질로 제 답장을 확인했는지 그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래처와의 어이없는 해프닝은 가볍게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박 대리, 일 이렇게 할 거야? 이거 계산도 안 맞고. 담당자 만나서 대체 뭘 한 거야? 자료를 자세히 보긴 한 거야?”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해할 거 없고 다시 가서 똑바로 수정해 달라 그래. 이거 원 말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메일로 부탁하기도 민망해. 지금!”

그렇습니다. 그날 해프닝에 놀라 후다닥 빠져나온 제 불찰이지요.

알고 보니 뒤늦게 받은 실험보고서는 아주 엉망진창이었고 저는 ‘분노 게이지’ 1000퍼센트를 달성한 박 과장님의 잔소리에 떠밀려 다시 그 거래처를 방문해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커피도 미리 내어져 있고 도착 전에 요청한 대로 필요한 서류들도 종류별로 딱딱 나눠서 놓여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보이는 꽃분홍색 메모지. 거기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한 문장이 적혀있었습니다.

<데이트 신청합니다!!!!>

문장 끝에 느낌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려 다섯 개나 적혀있더라고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상대를 쳐다보니 그 남자 직원은 반짝거리는 눈으로 제 표정을 살피고 있는데 ‘이 사람 진짜 보통 내기 아니구나. 이렇게 무한 대시를 하는데 계속 거절하면 오히려 일할 때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잠시 고민을 한 후 결국 메모지에 <YES!>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고 그날 저희는 바로 주말에 커피숍에서 만나자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저보다 네 살 연하로 밝고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처음에는 몇 번 만나주고 자연스레 멀어져야지 하는 마음이었

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 그 사람의 순수한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에 ‘누나~’ 하는 사이로 시작해서 어느새 ‘여보~ 자기~’ 하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기~ 뭐해? 내가 일을 너무 잘하나 봐. 다들 일을 몰아줘서 오늘도 야근 확정이야. 아무튼 얼른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연락해.”

그는 제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남자답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마냥 ‘연하’로서 귀엽고 땡땡이 같은 남자친구가 되긴 싫었나 봐요.

언제 한 번은 퇴근 후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일찍 들어갈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네. 너 컨디션 조절 잘 해야 된다. 젊을 땐 몰라도 30대만 돼도 흑기.”

“참나, 우리 겨우 네 살 차이거든? 그리고 맞아. 나 지금 출장 다녀와서 완전 피곤해. 그래도 너 보려고 온 거잖아. 맨날 나만 이렇게 애 닳는 것 같아서 짜증 나!”

“어쭈구리, 지금 ‘너’라고 했냐? 이 자식이 이제 누나라고도 하기 싫다 이거야?”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나만 누나 좋아하는 거지? 그치? 그래도 어찌됐든 난 누나만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맨날 야근해도 누나 만나러 가는 건 하나도 안 힘들다고.”

자기를 걱정하는 제 맘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맨날 센 척하고 저를 이겨 먹으려 하는 남자친구였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도 저를 좋아해 주는 그 진심을 알기에 나름 별 탈 없이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처럼 퇴근 후 가볍게 드라이브

하는데 갑자기 그가 차를 멈추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할 말, 뭔데? 너 또 사고 쳤어?”

“내가 무슨 사고를 친다 그래. 그게 아니고,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해외연수를 가게 됐어. 근데~”

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저는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줬죠.

“어머! 잘됐다. 난 해외연수 가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됐거든. 어디로? 정말 축하해! 부럽다. 나는 언제쯤 갈 수 있으려나?”

그때였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가 싶었습니다.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왜? 해외연수 가기 싫어? 그래서 그래?”

“아니야. 누나, 오늘은 우리 일찍 들어가자. 좀 피곤하네. 저기서 내려주면 되지?”

갑자기 냉랭해진 분위기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처음으로 집 앞이 아닌 지하철역 근처에서 내려야 했죠.

그날로부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 후에도 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보낸 문자에도 묵묵부답.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괴로웠는데 딱 일주일이 되던 날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 다음 주에 떠나.>

저는 진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문자를 받고 나니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점점 일상에 중심이 기울어지더라고요. 퇴근 후에 집에 도착해서도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밥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고 제 시선은 시계추처럼 좌우로 흔들렸죠.

‘이건 개한테 좋은 기회야. 그걸 내가 망칠 순 없어. 내가 그 사람보

다 연장자고 누나고 인생 선배야. 발목 잡고 매달리는 건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라고.’

그러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근데 해외연수 얼마나 오래 가는 건지도 못 물어봤네. 설마 6개월? 아니면 1년?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과 감성이 서로 부딪혔고 결국 제 감성이 이겼으니까요.

새벽 2시에 저는 바로 휴대폰을 집어 들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잠자리에 들었는지 연신 전화를 받지 않다가 마침내 “왜? 무슨 일 있어?” 하며 조금은 놀란 듯한 기색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닭똥 아니 코끼리똥만한 눈물을 툭툭 흘리며 외쳤습니다.

“야! 가지 마! 네가 떠나면 나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지 마~ 엉엉엉~”

“이럴 땐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줘야지.”

“그래! 사랑해! 널 사랑한다고! 내가 더 좋아한다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해외연수를 포기했고 제 곁에 남았습니다. 그다음 열심히 연애한 2년의 시간을 끝으로 마침내 따뜻한 봄날 결혼했어요.

만약 그때 제가 그 사람을 잡지 않았더라면 어찌면 우리는 이별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 앞에 자존심이 뭐가 중요한가요. 나이가 더 많고 적고 이런 게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도 제 옆에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프림 커피를 타 주며 질투도 하고 사랑을 아끼지 않는 우리 남편. 항상 고맙고 매일 이렇게 투닥거리며 살자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일말상초의 법칙

애청자

군인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일말상초’라는 게 있습니다. ‘일병 말상병 초를 줄여 쓴 건데 이 표현이 하나의 사자성어처럼 굳어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제발 나 다음 달에 휴가 나가거든.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얼굴 보고 만나서 얘기하자.”

“헤어지자고요? 혹시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예요? 그 자식은 나중에 군대 안 갈 거 같아요?”

이 시기만 되면 단체로 짠 듯이 옆에 아홉은 꼭 여자친구와 헤어지는데 제 선임과 동기들한테도 예외는 없더군요.

하지만 모두가 ‘일말상초’의 저주에 쓰러져 갈 때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제가 그 저주를 피할 십 분의 일’의 확률을 가진 사나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물으신다면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을 알려드려야겠지요.

“122번 군대 놀러 왔냐? 10분 안에 정비 마치라고 했지? 군대가 장난이야? 옆드려!”

아무것도 모른 채 입소해 우로 굴러 좌로 굴러 짠맛 매운맛 다 보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입소한 지 2주째 되는 날 나눠주는 편지 덕분이었어요.

“자, 인터넷 편지부터 준다. 김석중?”

“120번 훈련병 김석중!”

“다은이가 누구야?”

“저희 어머니입니다.”

“아~ 어머니씨? 받아 가. 그리고 김일중?”

“121번 훈련병 김일중!”

“아직 온 편지가 없네. 나중에 휴가 나가면 친구들한테 잘 좀 해.”

“네, 알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순서대로 편지를 받아가고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자, 그다음이 000?”

“122번 훈련병 000!”

“오~ 너 뭐야? 편지가 14통이 왔네. 정인이? 정인이가 누구야? 여자 친구냐?”

순간 ‘오~’ 소리와 함께 술렁이는 분위기. 편지 14통의 힘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인이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훈련소는 물론이고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도 2~3일에 한 번씩은 꼭 편지를 써줬고요. 면회도 자주 와서 자대에서 소문이 자자했죠.

“000! 여자친구가 면회 또 왔다면? 이야~ 너는 일병 때도 안 헤

어지겠다?”

“감사합니다!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짜식이. 그래 수고해.”

그러니 내심 나는 저들과 다를 거야,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신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저에게 그토록 꿈에 그리던 첫 정기휴가 날이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부대를 나서자마자 여자친구를 만나러 썩하고 달려갔습니다.

“야! 살은 왜 그렇게 빠졌어? 나 진짜 속상해. 미워! 내가 밥 잘 먹으라고 했어 안 했어?”

“나 진짜 괜찮아. 근데 정인아, 너야말로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고기 먹을까? 아니면 디저트?”

“아냐, 다 필요 없어. 나 그냥 너랑 이렇게 꼭 붙어있을래.”

여자친구를 만나니 그동안 고생했던 기억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꿈같은 시간을 보낸 후 부대 복귀를 하루 앞둔 마지막 날 저녁에 혼자 방에서 짐을 싸고 있는데 친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어이, 오랜만이다.”

“너 지금 집이지? 여기 사거리포찬데 소주 한잔할래? 할 말도 있고 잠깐 보자.”

“지금 갑자기? 일단 알았어. 나갈게.”

뭔가 심각해 보이는 친구의 목소리에 급히 집 앞 포차로 나갔는데 친구는 벌써 얼굴이 벌게져서는 조금 취해 있는 상태였어요.

“뭘 일 있냐? 왜 그래?”

“내가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걸 말해도 되나 입이 안 떨어지는

데 그냥 말한다.”

“아 뭔데? 말해봐.”

“정인이 있잖아. 지난주에 다른 남자랑 영화관에서 나오더라.”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영화관에서. 설마 그 액션영화? 분명 나랑 같이 보자고 했었는데.’

“너,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여자애들도 그럴 수 있어. 군대 간 남자친구한테 마음 떠서 헤어지자고 하는 게 뭐 쉬운 일이야? 자기 나쁜 사람 될까 봐 겁나는 거지.”

“에이, 네가 잘못 본 거 아냐? 그리고 뭐 사실이라고 해도 친구랑 영화 볼 수 있지. 난 그게 남자라도 별로 신경 안 써.”

“내가 너라서 말해주는 거야. 진짜 아끼는 친구니까. 야, 마셔. 인생 뭐 있냐.”

애써 쿨한 척하며 넘겼지만 그날 술은 홍삼보다도 썼고 다음 날 부대로 복귀하는 발걸음은 30킬로짜리 덤벨보다 무거웠습니다.

마냥 즐거울 줄만 알았던 첫 휴가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이전에는 매일 통화하던 여자친구가 2~3일에 한 번씩 연락이 되더니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으로 횟수가 줄더라고요.

‘뭐지? 시험공부하느라 바쁜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제가 상병을 단 바로 첫 주에도 그녀에게 자랑 하려는데 일주일 내내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선 그야말로 상상의 나라가 마음껏 펼쳐지기 시작했죠.

“정인아! 그 남자 누구야? 뭔데? 왜 둘이 손을 잡고 있는 건데?”

“미안해. 나, 새로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겼어. 너도 알고 있었잖아? 우리 헤어지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나한테 이리저리 마?”

“그럼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해줄래? 그렇게만 해주면 너한테 다시 돌아갈게. 나를 외롭게 하지 말아줘.”

“정말 그거면 돼? 사랑해. 사랑한다고!”

제 상상은 치정극이었다가 스릴러물이었다가 멜로물이었다가 다시 추리극으로 감정의 파도를 따라 시시각각 바뀌어갔고 그렇게 여자친구와 모든 연락이 끊긴 지 2주가 지나자 정말 답답해 미쳐버리겠더군요.

“안 상병님,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됐다. 내가 너한테 뭘 얘기를 하겠냐. 나 이번 주말에는 외출 나갔다 올 테니까 애들 좀 부탁할게.”

“넵, 알겠습니다.”

도저히 부대 안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 쫓기듯이 신청한 외출. 몇 시간 안 되는 자유시간인지라 뼈다귀해장국에 소주 한잔하고 근처 피시방으로 향했지만 제가 좋아하던 게임도 별로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대신 여자친구의 미니홈피를 들락날락 계속해서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며 뭐 올라온 건 없나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리를 스친 생각 ‘여자친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볼까’ 사실 저는 그녀의 미니홈피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서로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그날따라 혹시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결국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였고 로그인에 성공.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마우스를 누르며 그녀의 미니홈피를 탐색했어요.

‘사진첩에는 별것 없고 방명록에도 내가 모르는 놈이 쓴 글은 없는

데. 어디 보자. 어, ‘비밀 일기장’이 있었네?’

미니홈피 주인, 그러니까 자기만 볼 수 있는 ‘비밀 일기장’. 저는 흘러든 듯 그 일기장을 클릭했고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일기의 첫 줄을 읽자마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안OO에게. 안녕? 네가 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

저에게 제대로 된 이별의 이유를 직접 말하기가 어려웠던 그녀는 언젠가 제가 그 비밀 일기장을 열어볼 거라는 걸 알고 차분히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적어 놓았던 겁니다.

그제야 친구가 해주었던 말이 다시 떠오르고 이별을 직감한 듯 눈물이 솟구쳐 흐르는데 미련하게도 단번에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녀가 적어두었던 우리가 이별해야 하는 이유도 그냥 ‘나 네가 없어서 외로워’를 괜히 복잡하게 써 놓은 거라고 그러니 내가 다시 잘 설명하면 그녀는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외출에서 복귀하자마자 저는 부대 공중전화기를 붙들고 그녀가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네 번째 통화음이 가던 바로 그 순간!

“여보세요?”

“정인아. 나, 미니홈피에 네가 올린 글 읽어봤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 그만하자. 왜 이렇게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후후.”

분명 그녀에게 무언가 설명하고 싶었고 다독여주고 싶기도 화를 내고도 싶었는데 울먹이며 괴로워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말문이 턱 막히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통화는 전화카드에 남은 잔액을 다 쓸 때까지

지 서로 영영 울다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군대에서 겪는 이별은 정말 시간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미칠 듯이 괴로웠지만 그래도 제대하고 1년 2년 3년이 지나자 그녀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시외버스를 기다리며 터미널에 앉아 있는데 “안OO! 안OO!”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제 전 여자친구 정인이의 절친이더라고요. 제가 그녀와 헤어진 이후 자연스레 이 친구와도 관계가 멀어졌기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였어요.

“잘 지냈어?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요즘 뭐 하고 지내?”

조금은 어색한 사이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참, 정인이도 이번에 결혼하는 거 알지? 헉~ 혹시, 몰랐어?”

“아아~ 정인이 결혼해? 잘됐네. 야, 내가 버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가봐야 되거든. 다음에 또 보자.”

으이구, 훈수, 훈수! 그 친구는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녀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반응하며 도망쳤지만 그날처럼 기분이 더러웠던 날도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녀는 벌써 결혼을 한다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자괴감도 들었고 어떤 사람을 만났으려나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집에 도착해 예전 그녀의 ‘영화관 외도’를 제보해 줬던 제 절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그 친구는 그녀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소식을 알고 있을 것 같았죠.

“정인이 결혼한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도 너랑 그렇게 되고 개랑 서로 손절해서 청첩장도 안 받았어. 그리고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너한테 말하냐. 내가 너 대신 개 마주칠

때마다 얼마나 쌀쌀맞게 대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너도 이제 다 잊고 보란 듯이 잘살아.”

“참나~ 나 이미 다 잊었거든. 그냥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거야.”

그렇게 친구와 통화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마음의 상처로 내가 허우적거릴 때 옆에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를 지켜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사랑과 아픔을 반복하며 저 자신이 더욱 단단해지는 걸 느꼈고 이제는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한 사람과 결혼해 두 딸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17년 전 그때의 저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은 너의 온 세상이 흔들리는 거 같아도 다 지나간다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 테지만 돌아보면 다 너에게 자양분이 될 거라고. 사랑의 아픔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주변의 따스한 시선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러면 결국 너는 행복해질 거라고요.

사랑 사랑 사랑

짤맛 아니고 사랑 맛

애청자

‘대학 생활의 꽃’ 하면 누가 뭐라 해도 ‘가을 엠티’ 아니겠습니까. 단체로 모여서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고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모두가 즐거워할 때 저 구석에서 조용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들을 ‘학생회’라고 부르지요.

“아, 아! 여러분 배고프시죠? 저녁 식사 거의 다 준비됐다고 하거든요. 조별로 앉아서 기다려주시고 요리하느라 고생한 우리 학생회 친구들에게도 박수!”

엠티 첫째 날 저녁 학생회에서 제일 막내 1학년 신입생이었던 저는 식사 당번 그중에서도 ‘국’ 담당이 되어 인생 첫 요리를 완성해야 했어요.

“대충 된 것 같은데 어디 한 번 맛 좀 볼까?”

그때는 유튜브 레시피도 없었고 그냥 대충 엄마한테 주워들은 대

로 요리하는 게 다였잖아요. 우리 김 여사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 ‘대박’은 아니어도 ‘중박’은 치겠지 하고 맛을 보는데 아뽀싸 국이 짜도 너무 짠 게 아니겠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빠, 제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국에서 바닷물 맛이 나요. 어떡하죠? 물을 더 부을까요?”

“잠깐! 아냐. 그러면 양파랑 감자 더 썰어 넣고 설탕이랑 전분을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애들한테는 10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할게.”

우왕좌왕하는 저를 두고 요리 솔루션을 던져주고는 상황을 수습하러 간 선배. 저 때문에 식사 시간이 늦어져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선배가 총대를 메서 그런지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더라고요.

“애들한테는 내가 요리하다가 실수해서 좀만 기다려달라고 했어. 저기, 양파만 좀 썰어줄래?”

순간 오빠의 주변에 하트가 떠다니면서 후광이 비치고 저는 그날 선배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생각보다 자상하고 섬세한 성격에 뛰어난 요리 실력까지. 뒤늦게 알게 된 반전 매력이었죠.

“오빠! 오빠는 언제부터 그렇게 요리를 잘했어요? 꿈이 혹시 요리사예요?”

“에이~ 아니야. 잘하긴 뭘.”

“맞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망한 요리 살리는 게 더 재능이라던데. 어머니께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음, 뭐, 그치? 내 요리 실력은 엄마 덕분이긴 하지.”

언뜻 들어보니 엄마와 사이도 좋은 것 같은데, 저, 가정적인 남자가 이상형이었거든요.

그렇게 대학교 1학년 가을, 같은 과 학생회 선배에게 훌쩍 반해버린 저는 약 2년간의 구애 끝에 선배와 만나게 되었고 동기들은 우리를 ‘학생회 대표 커플’이라고 불렀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저희는 예쁘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어느새 장기 연애에 접어들면서 서로 다투는 일도 많아지고 몇 번의 고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루에 세 번씩은 꼭 행복했습니다. 바로 아침, 점심, 저녁. 집 데이트를 할 때면 오빠가 삼시세끼 요리를 해줬는데 저한테는 오빠의 자취방이 미술랭 쓰리스타, 블루리본, 레드리본 그 자체였거든요.

“오빠, 진짜 맛있다. 이걸 뭐랄까? 김치찌개에서 인생의 맛이 난달까?”

“그래 많이 먹어.”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어머니는 대체 요리를 얼마나 잘하시는 거야? 오빠는 밖에서 돈 주고 음식 사 먹는 게 아깝잖대, 그치?”

“에이, 아니야. 우리 엄마 그 정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못 하시는 거에 가까워.”

“아니 옛날에 우리 대학생 때 오빠가 그랬잖아. 다 엄마한테 배운 거라며. 혹시 어머니가 요리 잘하신다고 하면 내가 부담 느낄까 봐 그래? 걱정하지 마셔. 나는 요리 잘하고 싶은 욕심이 없네요.”

“그런 건 아니고. 아휴, 됐다. 음식 식겠어. 얼른 먹어.”

그때부터였을까요. 오빠가 갑자기 잊을만하면 한 번씩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별로 좋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음~ 맛있어. 이거 완전 일본식 팬케이크네. 오빠 최고! 짱짱!”

“이거 다 내가 혼자 배워서 한 거다.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절대 못 만드셔. 알았지.”

“이야~ 스테이크가 아주 잘 익었네. 합격!”

“넌 좋겠다. 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고기만 구워주시면 너무 질겨서 반도 못 먹고 다 남겼거든.”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하지.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는데 굳이 어머니 음식 솜씨 안 좋다는 말을 왜 계속하는 거야?’

오빠가 민망해할까 봐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아무튼 제 머릿속에는 아직 한 번도 뱉지 않은 어머니인데도 그 이미지가 점점 안 좋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처음으로 오빠 부모님을 뵈러 인사를 가는 날이었어요.

“오빠, 긴장돼? 어째 나보다 더 떠는 것 같아.”

“그런가. 좀 떨리네. 네가 우리 부모님을 좋게 봐줘야 할 텐데.”

“에이~ 오빠 부모님인데 내가 안 좋게 볼 일이 뭐가 있어. 긴장 풀어.”

손을 덜덜 떨면서 주차하는 오빠를 다독이며 드디어 부모님 댁에 도착. 선물을 바리바리 챙겨 초인종을 누르자 이윽고 현관문이 열렸고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만나 뵈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어찌나 인상이 밝고 선하신지 긴장이 금방 풀리더라고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 배고프지? 이제 저녁 먹자. 손 씻고 편하게 앉아.”

그리고 대망의 식사 시간. 처음 접해보는 어머니의 음식 앞에서 저도 살짝 긴장되었는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밥상은 매우 근사했어요.

“어머니, 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 많은 걸 혼자 다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온다고 해서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발휘해 봤어.”

“안 그래도 오빠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어머니한테 배웠겠거니 했거든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술 뜨려는 찰나 갑자기 어머니가 이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오늘 귀한 손님 온다고 특별식을 준비해 놓고 그걸 깜빡할 뻔했네. 잠시만~”

어머니는 별떡 일어나셔서 주방으로 달려가셨고 그와 동시에 아버님과 오빠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오빠, 왜 그래? 뭔데?”

“하~ 나도 모르겠다. 너, 놀라면 안 돼.”

오빠의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식탁으로 돌아오신 어머니. 어머니가 부랴부랴 냄비를 내려놓고 뚜껑을 여시는데 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냄비 안에는 아주 큼지막한 자라 두 마리가 배를 벌러덩 깬 채로 누워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내오신 특별식은 이름하여 용봉탕!

“이거 아주 귀한 음식이야. 좀 낫설긴 하겠지만 맛이라도 보렴.”

난생처음 보는 음식에 제가 동공 지진 상태로 냇이 나가 있으니까 갑자기 아버님이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내가, 내가 먼저 먹어보마. 그 귀하다는 용봉탕, 내가 먼저!”

그런 아버님의 표정에서 미래 시어른으로서 며느리를 구해주겠다는 비장함이 느껴져 웃음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그걸 먹으면 어떡해. 애 주려고 내가 애써서 만든 건데. 그만 먹어. 그만.”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저는 하

는 수 없이 국물을 한 순갈 떠서 간신히 맛보았고 그날 식사 자리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오빠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음식! 그러니까 용봉탕뿐만 아니라 계란말이, 잡채, 진미채 할 것 없이 모두 아주 달거나 짠 오빠가 왜 어머니를 통해 요리를 배웠다고 했는지 저는 그제야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음식 솜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음식을 자주 시도하셔. 용봉탕은 양반이고 번데기 부침전, 초콜릿 스파게티... 그래서 너랑 만나는 날에도 새로운 음식을 하실 걸 알아서 놀라지 말라고 미리 얘기했던 거야. 그래야 마음의 준비라도 하지.”

그러면서 오빠가 덧붙인 말.

“우리 명절에 부모님 뵈 때는 집에서 해먹지 말고 밖에서 외식하는 걸로 하자.”

그 말을 실천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집에서 요리하는 재미를 놓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명절 때마다 저와 오빠는 난생처음 보는 음식들을 먹으며 ‘컬처 쇼크’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빠가 ‘망한 요리’를 수습하기 위해 요리를 따로 공부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럼 제가 오빠에게 반할 수 있었던 그 ‘엠티’ 날의 사건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와 오빠의 진정한 오작교가 되어주신 우리 어머니! 항상 감사드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한테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셔요.

여자는 모른다

쇼핑의 즐거움

애청자

나는 오늘 기분이 참 좋았다. 나의 리즈 시절, 그러니까 머리숱 짱짱하고 뭘 걸쳐도 폼이 났던 10여 년 전의 나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때의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원하는 대로 입고 먹고 타고 신고 밤마다 인터넷 쇼핑물 사이를 날아다녔다.

나의 온리 원 취미, 쇼핑! 쇼핑은 여자들만 좋아하는 줄 아는데 남자도 쇼핑 좋아한다. 특히 나는 명품을 선호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저렴한 상품보다 확실히 오래 입고 쓸 수 있다. 품질 자체가 좋기도 하지만 고가의 상품이라 조심스럽게 사용해서 더 그런 거 같다. 또 명품을 소지하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긴다. 프라이드랄까! 열심히 일한 내가 나에게 준 훈장같이 느껴져서 저절로 턱이 올라가고 어깨가 으쓱으쓱 춤을 춘다.

장바구니에 주로 담은 품목 1위는 시계, 2위는 가방, 3위는 운동화.

“뭐야? 너 돈 많냐? 너희 아빠 재벌이야?”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명품은 어쩌다 한 번이다. 술 담배 안 하고 여행이나 레저 스포츠 안 하고 아끼고 아껴서 어쩌다 한 번 산다. 그래서 더 짜릿하다.

근데 무슨 밤마다 쇼핑이냐고? 장바구니!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만 놔도 행복했다. 눈으로 충분히 즐기는 것, 그것도 쇼핑이다. 쇼핑하며 장바구니에 담는 동안 내 머릿속에선 그 모든 걸 입고 타고 신을 수 있었으니까.

“야! 너 피규어도 좋아하잖아.”

아 맞다! 나의 작고 소중한 친구들. 드래곤볼의 ‘베지터’ 반프레스 토 피규어와 초사이언 풀파워 손오공, 슬램덩크의 백호, 대만, 치수, 태웅, 태섭. 그리고 소연이를 데려온 날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애들처럼 장난감이나 모은다는 조롱을 들어도 나의 사랑을 멈출 수는 없었다.

밤마다 이 사이트 저 사이트를 불나방처럼 날아다니며 사고 싶은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월급이 들어오면 과감히 지름신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급여가 빠듯하면 나의 든든한 친구 ‘무이자 할부’와 함께했다.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웃 입는 센스가 참 좋으시네요. 감각. 그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건데 멋있어요.”

반짝이는 눈망울로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그녀는 하루이틀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나의 온리 원 취미가 쇼핑이라는 걸 알게 됐고 지름신과 자주 만나는 나의 기복 넘치는 소비 패턴을 보더니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다.

“지금처럼 써재끼는 남자랑은 미래가 없어. 우리 헤어져.”

아내의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녀다운 며칠을 누워서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 없다고 끙끙 앓다가 가지고 있던 카드를 모두 자르고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서를 한 열 통쯤 쓰고 나서야 그녀와 함께 식당에 입장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했고 아내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알뜰한 여자였다.

“자기야 휴지를 왜 한 번 쓰고 버려? 여기 뒀다가 이따 또 써도 되잖아?”

“자기야 쌀뜨물 버리지 마. 페트병에 담아뒀다가 나중에 찌개도 끓이고 나 세수도 할 거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자 아내의 절약 정신은 나날이 더욱 투철해졌다.

“당신, 화장실 가는 거지? 작은 거야? 작은 거면 물 내리지 마.”

애들도 나보다 서열이 강해 보이는 엄마 쪽으로 노선을 땀는지 “맞아, 아빠는 아낄 줄 몰라. 엄마, 저번에도 아빠가 휴지를 쓰는데…”

“모야? 또 한 번만 쓰고 버린 거야?”

“에이 무슨 소리아. 나는 휴지라는 걸 아예 안 쓴 지 오래야. 당신이 그랬잖아. 이거 빨아 쓰는 행주 이걸 손수건처럼 딱 갖고 다니라고”

“맞아. 그거 한 장으로 입도 닦고 손도 닦고 코도 풀고 잘 빨아 쓰면 그거 한 달도 쓸 수 있어.”

“뭘? 한 달? 여보, 당신 요즘 씹씹이가 너무 헐퍼졌다. 한 석 달은 써야지.”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그래 여보, 우리 이왕이면 아예 안 쓰기도 한번 살아봅시다. 할 수 있어, 우리.”

“어~ 자기는 할 수 있고 당연히 나도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아자아자!”

그렇게 거짓말로 대충 상황을 모면하고 방으로 들어와 아내가 아



직 주방에 있는 걸 확인하고 오랜만에 인터넷을 열었다. 잠깐의 대화 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급상승. 도파민이 필요했던 나는 보는 순간 피로가 사르르 녹고 혈압이 진정되는 쇼핑몰을 찾아 서성거렸고 마침내 한곳이 눈에 들어왔다.

“오~ 예쁘네. 좋았쓰. 진행시켜!”

귀신에 홀린 듯 하나둘 아이템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담은 것만으로 기분이 풀렸다. 이왕이면 구매 버튼까지 누르고 싶지만 그러기엔 장모님의 따님이 너무 무섭다. 얼마 전에도 그분 몰래 옷을 사서 근처 사는 형네 집으로 배달받은 적이 있는데 집으로 몰래 가져와 입

어보려는 순간 “그거 뭐야?”라는 아내의 말에 나는 북극의 빙하처럼 얼어붙었다.

“그거 모냐고? 못 보던 바진데?”

“어어 이거 형이 며칠 전에 산 건데 자기한테 안 맞다고. 당신 알잖아. 형 체중이 나보다 몇 배는 더 나가는 거.”

아내는 의심의 눈초리를 나를 쏘아보더니 기어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뿔싸 이건 시나리오에 없던 건데.

“네 아주버님. 그럼요. 알죠 알죠. 네네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후 전화를 끊은 아내의 표정은 잘 모르겠다.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눈을 감아 버렸으니까. 용기를 내어 눈을 떴을 땐 아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삭제. 삭제. 이것도 삭제. 명품편집숍? 너는 영원히 삭제.” 그동안 나에게 기쁨을 주고 치유를 선물했던 쇼핑목록들을 모조리 지워버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방으로 피신한 나에게 한줄기 봄바람처럼 찾아온 새로운 쇼핑물. 구매까지는 못하더라도 나의 리즈 시절을 떠올리며 신나게 장바구니에 아이템을 담는데 등골이 싸늘하다.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당황하지 않은 척 급하게 쇼핑물을 닫고 신문 기사 뉴스거리를 보는 척한다.

“아빠, 뭐해?”

다행히 아내가 아닌 막내 아들.

“어... 아빠... 공부하지. 아들 왜?”

“엄마가 운동 간다고 나오래. 방에서 쇼핑 그만하고!”

“엑! 진짜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역시 아내는 앉아서 천리를 본다. 모든 걸 알고 있다.

여자는 모른다

현실 남매

애청자

대를 이어 여성시대를 열혈 청취 중인 40대 가장입니다. 저에겐 3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여동생만 보면 나이가 든 지금까지도 이유 없이 놀리고 싶고 괴롭히고 싶고 그래요. 근데 저만 이러는 거 아닐걸요? 여동생을 둔 오빠들은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있는 여동생들이 친오빠 얘기만 나오면 다들 그렇게 정색을 하고 치를 떤다잖아요.

게다가 저희 남매는 얼굴이 너무 닮았습니다. 거의 데칼코마니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여동생에게 얼굴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생이 가족톡방에 사진을 올리며 말합니다.

<엄마~ 나 오랜만에 미용실에서 파마했는데 어때? 나는 너무 맘에 들어>

<아이~ 깜짝아~ 누가 내 휴대폰 해킹한 줄! 완전히 내 얼굴에 여자

머리 합성한 거 같다야>

<오빠는 좀 그냥 가만있어. 오빠한테 한 말 아니니까>

<우리 딸 이쁘게 잘됐네~ 근데 갑자기 머리는 왜 했어?>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 가는 데 가기 전에 좀 꾸며봤지. 나, 커리어 우먼 느낌 나지 않아?>

<커리어 우먼 느낌? 음... 그냥 오빠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

<으으~ 뭐래~ 진짜~>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시절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농구장에서 친구들과 농구하는데 멀리서 여동생이 친구들과 왁자지껄 떠들면서 오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친 동생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댔습니다. 그건 저 보고 자갈 아는 척 하지 말라는 신호였죠. 오케이! 뭐 저도 친구들과 농구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했고 여동생도 조용히 지나갔는데요. 집에 오니까 동생이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오빠! 너는 왜 또 농구장에 있었어?”

“앵? 내가 우리 집 앞에서 친구들이랑 농구하는 게 뭐 잘못이냐?”

“잘못이지. 내 친구가 오빠 농구하는 거 보고 갑자기 묻는 거야.”

‘은이야 너는 왜 오빠 보고 아는 척도 안 해? 싸웠어?’

‘아니. 근데 너 우리 오빠 본 적 있냐?’

‘아니 본 적 없는데 딱 봐도 알겠는데. 저기 저 남자, 스포츠머리로 깎은 딱 네 얼굴이야. 몰라볼 수가 없어.’

“이러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냐? 오빠랑 내 얼굴이 판박이라잖아!”

솔직히 가족이니까 닮은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왜 이런 걸로 욱을 먹어야 하죠. 화를 낼 거면 어머니 아빠한테 낼 것이지. 암튼 나이가 들어도 여동생을 놀리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며 저에게 인사를 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껏 한 번도 저에게 연애 상담을 하지 않았던 동생이기에 저는 신기해하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예비 매부는 제 예상보다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도 온순하고 씩씩해서 아주 속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너스로 탄탄한 직장까지 다니고 있다니 저야 뭐 당연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여동생의 우쭐거리는 표정을 보니까 또 놀려야겠다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예비 매부, 아주 맘에 든다. 근데 우리 예비 매부는 여자 얼굴은 아예 안 보나 봐? 심성을 보나? 근데 네가 그렇게 심성이 고운 편도 아닌데 암튼 참 특이하고 고마운 친굴세.”

“왜 또 시비아? 내가 밖에 나가면 남자들이 가만히 안 놔둔다고. 오빠만 날 무시해.”

“너 혹시 우리 집이 부자라고 하거나 통장에 돈이 많다고 뻥치는 거 아니지? 요즘 돈 보고 접근하는 나쁜 놈들 많다더라. 너도 조심해.”

“아흐~ 뭐래나~ 진짜~”

결국 우리 여동생은 예비 매부와 결혼했고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랑 여동생 둘 다 이제 부모가 됐으니 서로 놀리고 화내는 건 그만 할 때가 된 거 같죠. 근데 아니요. 똑같습니다. 여동생도 저한테 외모 공격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여동생과 엄마, 저 셋이서 제 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뒷좌석에 있던 여동생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잘생긴 남자들도 보톡스 맞고 눈썹 문신도 하고 외모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들 한다. 근데 오빠 너는 대체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

서 그렇게 생긴 대로 막살아?”

“왜? 우리 아들 얼굴이 어때서? 잘 생기기만 했고면? 아무리 봐도 고칠 데가 없는데?”

“엄마는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겨 보이지? 하긴 나도 내 아들이 그래 보이긴 하더라.”

“오빠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는 쌍수하고 코도 살짝 높였잖아? 그래서 뭐 바뀐 게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네 덕분에 알게 됐지. 그래서 난 얼굴에 손 안 대.”

“야, 그 얘기 좀 그만해. 나 자리 잘 잡혀서 오빠 너만 조용히 하면 수술한 거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야.”

“오늘은 내가 먼저 시작했다. 나는 가만히 운전하는데 네가 내 뒤통수에 대고 보톡스네 뭐네.”

“네가 맨날 내 외모 공격하니까 그렇지.”

“너? 이게 또 오빠한테.”

“그만해! 너희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렇게 서로 못 놀려서 안달이니?”

근데 제가 이렇게 여동생을 놀리는 건 다 애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눈엔 아직도 여동생이 너무 귀엽거든요. 귀여우면 막 놀리고 괴롭히고 싶은 그 심정 특히 여동생 있는 오빠들은 다 아실 겐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여동생에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오빠들이 여동생 미워서 놀리고 괴롭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무 귀엽고 이쁘는데 대놓고 이빠하기에 쑥스럽고 멋쩍어서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약 올리고 열받게 할 때 ‘어휴~ 또 내가 너무 귀여워서 저러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랑 속 닮은 동생아, 너도 알았지?



깊은 생각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도대체 어디에 정신을 두고 사는지? 재미없는 나날들이다. 그사이 가는 해와 오는 해가 교대했고, 여성시대는 50주년 기념을 위해 열심히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다.

2월, 뜻깊은 손님이 오셨다. 손숙 선생님과 한 시간은 너무 아쉬웠다. 위로와 따스함으로 여성시대와 함께하셨고 당시 본인도 여러 가지로 힘겨울 때여서 거꾸로 더 위로를 받았고 애청자들 덕에 견디고 살아낼 수 있으셨단다. 옆지기였던 배우 정한용 씨와의 전화 연결은 많은 웃음을 주었는데 다른 남자 진행자들과도 전화 연결을 하고 싶었다. 옆지기 남자들이 바뀐 이야기 중에 나는 전유성 선배 이름이 생각 안 나서 2~3초간 더듬거렸는데 충격이었다. 이렇게 깜빡거리다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나빠지게 될까? 명징했던 기억력에 기대지 못할 일도 많겠다 싶었다.

작년 여름부터 남편의 뇌경색 덕에 속으로 굼은 것도 같다. 식사 수발은 물론이고 다른 것들까지 신경 쓰면서 벌써 7개월째다. 그래

서인지 요사이는 쉬는 날이 기다려진다. 느긋하게 늦잠 자고 부엌일에서 놓여나고 싶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75세부터는 진짜 진짜 부엌일을 마치고 싶지만, 아무런 기댈 데 없는 두 식구가 밥은 먹어야 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 또 힘을 내서 상을 차려낸다.

1월 마지막 날 눈이 푸짐하게 오던 날, 수영 가방 챙겨서 나오다가 우리 집 계단의 경사진 곳에서 파당하고 된통 넘어졌다. 다행히 살집이 좋아 뼈는 무사했으나 왼쪽 엉덩이와 등판 전체, 어깨, 목이 뼈근해서 곧장 들어와 부항을 뜨고, 좌우 손등과 손바닥에 수지침을 놓았다. 그러고는 뜨끈하게 온도를 올린 온열기에 누워 한 시간여 지졌다. 그런 류의 사고는 자동차 사고와 같아서 한 이삼일 정도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된 덕에 통증을 모르지만, 그 후에는 여러 곳에 통증을 느낀다. 한의원에 가서 한방 침도 맞고 여러 조치를 취해서 하루하루 통증은 나아진다.

새해 되면서 은근한 치통이 있었는데 그러려니 하고 넘기다가 점점 오른쪽 이마 위로 두통까지 생겼다. 게으름을 피울 대로 피우다간 한꺼번에 계를 타겠다 싶어 무거운 발걸음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소중한 7번 작은 어금니가 걸보기엔 멀쩡한데 뿌리 깊은 데까지 완전히 썩어서 신경치료로도 살리기 힘들다 하여 그냥 뽑아냈다. 큰 눈과 큰 추위가 오가는 가운데, 앓던 이가 빠진다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다. 그 덕에 무지근하던 오른쪽 두통도 함께 사라졌다.

속으로 깊이 생각했다. 나도 내 작은 어금니처럼 걸은 멀쩡한데 파헤쳐 들어갈수록 썩어 있는 건 아닐까?



졸업식과 입학식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올해는 우리 집 첫째 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이 함께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것이다. 아들 입으로도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코흘리개 초등학생이었던 게 잊 그제 같은데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다.

되돌아보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될 때가 변화의 느낌이 가장 큰 거 같다. 6년과 3년이라는 학년의 차이도 있지만 대부분 초등학교는 사복을 입고 다니지만 중학교 때부터 교복을 입게 된다. 셔츠에 재킷을 입으면서 왠지 어른이 된 거 같은 기분. 하지만 아직 애송이일 뿐. 하지만 고등학생은 좀 더 성숙해진다. 장남도 얼마 전엔 아빠의 면도기로 생애 첫 면도를 하기도 했다.

중학교 3년의 기간 동안 아들의 장래 희망은 두어 번 바뀌었다. 1학년 때만 해도 군인이 멋있어 보였는지 특수부대요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러더니 우리나라도 아닌 영국이나 유럽 쪽에 진출해서 용병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켜보는 아빠로서 참 한숨이 나오는 꿈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시간이 흐르면서 꿈도 변했다. 이번엔 범죄심리학자가 되고 싶단다. 그래 원래 그맘때가 다 그렇지. 그래도 하

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 참 훌륭한 일이다. 다만 아들의 꿈의 크기가 현실과 타협해서 줄어들지 않기를.

2월 중순쯤 중학교의 졸업식이 있었다. 아빠 엄마 둘째 아들이 총출동해서 졸업을 축하해줬다. 기특하게도 3년 개근상과 학급회장을 맡았기에 봉사상도 받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들어보는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 나 때는 야외 운동장에 오와 열을 맞춰 서서 찌렁찌렁 울려 퍼지는 마이크 소리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실내 체육관에서 의자에 앉아 편하게 교장선생님 말씀을 경청한다.

그리고 놀라운 한 가지. 보통 졸업식에는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로 시작하는 졸업식 노래를 필수로 불렀다. 1절은 재학생이 2절은 졸업생 3절은 다 같이 부르는 게 코스였는데 지금은 재학생도 볼 수 없고 노래도 공일오비의 ‘이젠 안녕’으로 바뀌었다. 이 노래는 보통 친구들끼리 간 노래방에서 마지막에 마이크 돌려가며 한 소절씩 불렀었는데 말이다.

이제 3월이 되면 고등학교 입학식이 있겠지. 월요일 오전 시간이라 나는 함께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글로나마 우리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련다. 찬란한 10대의 마지막 3년의 시간. 초등 중학 시절보다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좀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때만 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하길 바란다.

특히나 같은 서울에 있는 학교지만 주중에는 기숙 생활을 하는 탓에 지금처럼 매일 얼굴을 볼 수 없을 테니 더 빨리 독립한 거 같아 마음이 쓰이지만 워낙에 엄마 아빠의 잔소리 없이도 본인의 할 일을 잘 해왔던 우리 아들이기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스스로 잘 해내리라 믿는다. 서울국제고등학교 1학년 김민준 파이팅!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로그인도 얼굴 인식으로 되면 편할 텐데

바쁘는데
은행까지
가야 하나?

나한테 딱 맞는 금융 상품은 있을까?

계좌 개설도 더 쉽고 간편해지면 좋겠다

인증 한번으로 사업장들을 다 관리할 수 없나?

사장님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은행 방문 없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빠르게,
새로워진 기업스마트뱅킹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찾아갑니다.

새로워진
기업스마트뱅킹

i-ONE
기업



인증서 하나로
여러 사업장 동시 관리



생체·패턴인증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직관적 UI/UX와 스마트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72688(2024.12.05) 유송가(24.02.25.12.04)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외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항에 따라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1566-2568)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었다



말하지만

그세상을



바꾼 것은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멈추지 않는 위대한 기업,

그 옆에. IBK 기업은행.